

2007 대학원의 세계



교육인적자원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한 삶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직업세계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세계의 변화로 직업의 생성 및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개인은 직업을 바꾸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평생 동안 5-6개 이상의 직업을 바꾸며 살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성적에 의해 일류대학, 인기학과 진학으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신뢰성 있는 직업 및 학과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미래의 직업세계 2007』을 발간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미래의 직업세계』의 대학원편으로서 고학력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대학원의 유형, 변화 추이 및 일반대학원의 학과별 정보와 전공계열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원 학과별 현황과 진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2007 대학원의 세계』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디자인 하였고, 우리나라 91개 대학 일반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 2,7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한 진로·직업정보 및 학과정보가 더욱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2007 대학원의 세계』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자료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학부모 및 진로상담 전문가의 상담 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인익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능력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직업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능력 개발의 첫 걸음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인적자원의 역량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진로 탐색 및 직업 준비 없이는 성공적인 인생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개인의 진로 개발과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실업의 경우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mismatch)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의 직업세계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과 직업 준비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5년도에 이어 진로·직업정보서인 『미래의 직업세계 2007』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미래의 직업세계』의 대학원편으로 대학원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대학원의 유형, 변화 추이 및 일반대학원의 학과별 정보와 전공계열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의 세계 학과 정보를 기획·작성하는 데 노력한 연구진과 책자 디자인을 개발한 황경환 대표이사, 작성된 대학원 학과 정보를 검토해 준 학과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학생들에게 평생 동안 설레임과 즐거운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인생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유용한 정보의 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고 지도하는 분들께도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원각

Contents

I. 우리나라 대학원의 세계	9
1. 대학원의 유형	9
가. 일반대학원	10
나. 전문대학원	12
다. 특수대학원	13
2. 우리나라 대학원의 변화 추이	14
가. 설립별 대학원 수 추이	14
나. 대학원 재학생 수 추이	15
다. 연도별 학위취득 및 대학원 졸업 후 진로현황	18
라.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변화 추이	20
마. 학위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변화 추이	21
3. 계열별 대학원 전공에 대한 소개	22
가. 인문계열	22
나. 사회계열	23
다. 교육계열	24
라. 공학계열	25
마. 자연계열	27
바. 의약계열	28
사. 예체능계열	29
II.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조사에서 나타난 학과별 대학원의 세계	31
1.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실태조사의 개요	31

학과별 대학원의 세계 35

가. 인문계열 37

- 1) 국어국문학 38
- 2) 일본어·문학 40
- 3) 중국어·문학 42
- 4) 영어·영문학 44
- 5) 유럽어·문학(독어독문, 불어불문) 46
- 6) 인문계열 Tip 정보 48

나. 사회계열 57

- 1) 심리학 58
- 2) 역사·철학 60
- 3) 경영학 62
- 4) 경제학 64
- 5) 법학 66
- 6) 사회학 68
- 7) 행정학 70
- 8) 사회계열 Tip 정보 72

다. 교육계열 81

- 1) 교육학 82
- 2) 교육계열 Tip 정보 84

라. 공학계열 93

- 1) 건축·설비공학 94
- 2) 토목공학 96
- 3) 기계공학 98

4) 전기공학	100
5) 전자공학	102
6) 전산학 · 컴퓨터공학	104
7) 정보 · 통신공학	106
8) 화학공학	108
9) 공학계열 Tip 정보	110
마. 자연계열	119
1) 생물과학(생물학, 생명공학)	120
2) 화학	122
3) 환경학	124
4) 수학	126
5) 물리 · 과학	128
6) 자연계열 Tip 정보	130
바. 의약계열	139
1) 의학	140
2) 약학	142
3) 의약계열 Tip 정보	144
사. 예체능계열	153
1) 디자인학	154
2) 예체능계열 Tip 정보	156
부록. 학과별 관련 학과(전공) 및 설치대학	163

I. 우리나라 대학원의 세계

1. 대학원의 유형

대학원의 유형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고,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각 대학원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 〉 대학원 유형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목적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수업형태	주간	주간	야간·계절제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치가능	석사과정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	전문학위
교육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 위주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
학부의 교원·교사 활용	학부와 연계	학부와 연계되어 있으나 별도의 대학원 전임교원 확보	학부와 연계
배출인력	연구 및 교수인력(R&D)의 양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인력의 양성	직업인의 계속 교육

가. 일반대학원

1) 일반과정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수업이 진행되며, 주로 원서강독과 실험실습, 전공 관련 주제 토론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강의가 이루어진다. 학생은 전일제(full-time) 학생과 시간제(part-time) 학생으로 구성되며, 대학원 입학시험시 서류전형이 늘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대학원과는 반대로, 아직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구술고사)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 내에서의 경력심사와 출신 대학의 학부성적을 근거로 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직장인의 경우 정부 관련 기관과 각 대학교의 대학원이 협력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개발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연계 학·연 협동연구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대학원에는 전문적인 학술기능의 양성과 연구, 대학교원의 양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석사는 24학점 이상, 박사는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논문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박사 학술학위를 수여한다.

〈 표 2 〉 법령상의 학술학위 종별

석사학위	박사학위
문학, 신학, 교육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도서관학, 행정학, 상학, 도시계획학, 이학, 가정학, 공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수의학, 보건학, 조경학, 농학, 수산학, 체육학, 미술학, 음악학, 조경학	철학, 문학, 신학, 교육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경영학, 행정학, 이학, 가정학, 공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간호학, 약학, 보건학, 농학, 수산학

학술학위 : 법령(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석사 27종과 박사 21종임.

2) 대학원 편입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최근 대학원 제도의 변화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제도의 출현일 것이다. 석사 및 박사 과정 편입학의 경우, 시행하는 대학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학부의 편입학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시행하는 대학원은 많지 않고, 자격요건도 대학원마다 매우 상이하다. 1998학년도에 처음 시행한 연세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각 학위과정별 동일 전공이나 유사 전공 분야에서 해당 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는데, 학점은 석사학위 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 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하고,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통해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결원수를 선발하였다.

석·박사 통합과정이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연계시켜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빨리 배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이 학위논문 제출 없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 바로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연구와 학문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학위과정 진학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력을 학문탐구에 투자하게 하여 소정의 학문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전형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과 마찬가지로 석·박사 통합과정이란 명칭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시험은 영어·면접·전공을 보는 대학원이 대부분이다.

3)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은 각 계열 영역의 관련 학과들이 협동으로 운영하여 학과의 경계영역 학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진보된 형태의 학문과정으로, 특성에 따라 건설교통공학·영상표시·기술경영·멀티미디어학·아시아지역학·과학사·과학 철학 등 특색 있는 전공들이 개설된다.

학·연·산 협동과정은 대학원과 국내의 우수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국립보건원, 임업연구원, 사기업 연구소 - 등이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입학은 해당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미취업자의 지원도 가능하다. 두 과정 모두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나. 전문대학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고, 대학에 대한 대학원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학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일반 및 특수대학원 외에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 등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전문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으며, 학위는 특정 직업과 연계된 전문 분야의 현장 중심 기술과 지식 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전문학위를 받을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술이론 및 학술 연구방법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영역에 대한 별도 명칭 부기가 없는 학술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0년에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보건대학원,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국민대 자동차공학대학원, 경기대 건축대학원, 한양대 도시대학원,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등이었는데, 2005년 현재는 130개 학교에 석사과정 390개, 박사과정 264개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정책에 따라 전문대학원은 정체성 정립 및 질 관리 유도를 위해서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천적 이론 및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문 분야별 이수학점 상향 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인턴십의 실시, 현장과 연계된 프로젝트 수행, 산학협동위원회 설치·운영 등 프로그램의 질 관리 강화를 각 대학원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분야의·치의학, 법률, 경영(MBA), 행정, 통역, 국제통상, 국가전략분야, 물류, 디자인, HRD 등. 다만, 의·치의학, 법률 분야는 별도 검토)로서 그 직업의 프레스티지(Prestige)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분야,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구 분야에 전문대학원의 신설 및 증원을 유도하고 있고, 전문대학원 신설 시에는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은 폐지하고, 박사과정 신설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의 전문대학원 전환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 특수대학원

과거에는 특수대학원이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원이란 명칭으로 호칭되었는데, 이제 전문대학원이란 특수 전문직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원들이 법령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능이 혼재되어 대학원 유형별 특성화가 미흡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원의 특성화를 위해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의 제공이라는 주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인 2년 과정의 주간제로 운영되는 데 반해, 2년 6개월 과정의 야간제와 3년 과정의 계절제로 운영되는 데 큰 차이가 있으며, 실무적 차원의 전문교육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수업연한·이수학점체계·제 규정·학위수여 종별 등에 있어서는 일반대학원의 예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대학원은 그 동안 현대사회와 경제발전예 따라 각 분야에서 고급 두뇌와 전문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각 대학에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많은 수의 특수대학원을 설립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양적인 팽창을 보여 왔으며, 대다수의 특수대학원이 국·공립대학교 보다 사립 대학교에서 설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여 학위 종별에 있어서도 특수대학원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학위 자체도 각종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특수전문교육에 대한 평가로서 수여되기보다는 단지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학점이수와 형식적인 졸업논문 관련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할 경우 별다른 평가 없이 학위가 수여되는 등 학위가 남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부터 특수대학원의 평생교육 기능 내실화를 목표로 특수대학원의 직업인 및 일반성인들의 재교육·계속교육 수요에 부응하도록 특성화 정책 추진과 학생모집에서 지원율이 감소하는 분야의 폐지 등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조정 권장, 엄격한 학사관리, 논문지도 철저 등 질 관리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특수대학원으로 원격(사이버) 대학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최근 e-learning의 발달에 따른 대학원 교육수요를 따라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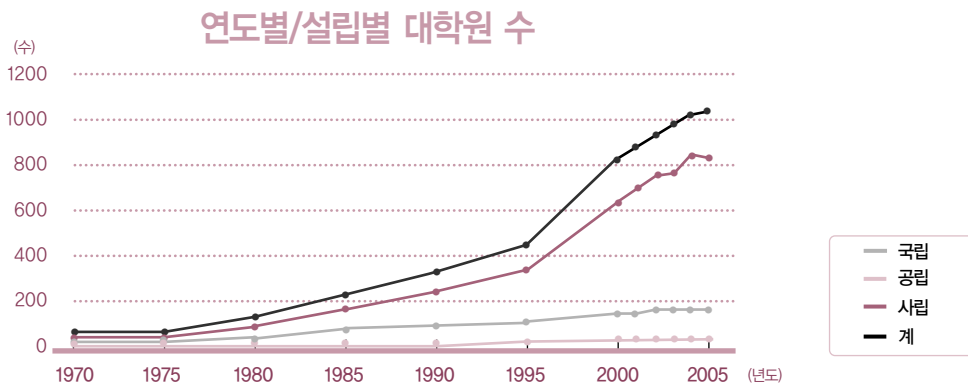
2. 우리나라 대학원의 변화 추이

가. 설립별 대학원 수 추이

우리나라의 대학원 수는 1970년 64개교(국립 21개, 사립 43개)에서 시작해서 2005년 현재 1,051개교(국립 164개, 사립 873개, 공립 14개)로,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5년에서 2000년 사이는 대학원의 수가 두 배 가까이 팽창한 시기로, 대학원의 급격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대학원 증가 비율이 국립이나 공립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 〉 연도별·설립별 대학원 수

구분(년)	계	국립	공립	사립
1970	64	21	-	43
1975	82	24	-	58
1980	121	32	-	89
1985	201	41	2	158
1990	303	64	3	236
1995	427	90	6	331
2000	829	138	12	679
2001	905	139	12	754
2002	945	151	13	781
2003	1010	158	13	839
2004	1030	158	14	858
2005	1051	164	14	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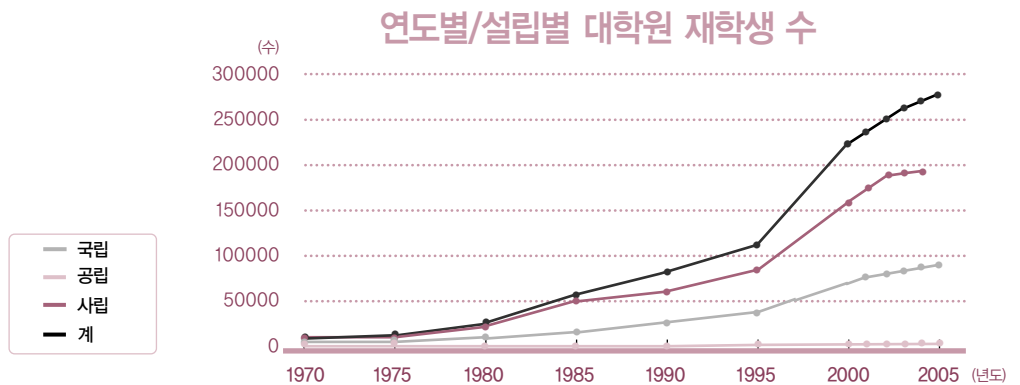


나. 대학원 재학생 수 추이

연도별, 설립별로 대학원 재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재학생 수도 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대학원 수의 증가에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 수도 많이 증가했다. 지난 35년 간 대학원 재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의 6,640명에서 2005년 28만 2,225명으로 약 42.5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4 〉 연도별·설립별 대학원 재학생 수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1970	6,640	2,597	-	4,043
1975	13,870	4,236	-	9,634
1980	33,939	11,133	-	22,806
1985	68,178	19,155	207	48,816
1990	87,163	25,175	384	61,604
1995	113,836	34,620	1,081	78,135
2000	229,437	68,841	2,657	157,939
2001	243,270	71,680	3,016	168,574
2002	262,867	77,241	3,344	182,282
2003	272,331	79,832	3,622	188,877
2004	276,918	80,122	3,870	192,926
2005	282,225	81,207	3,970	197,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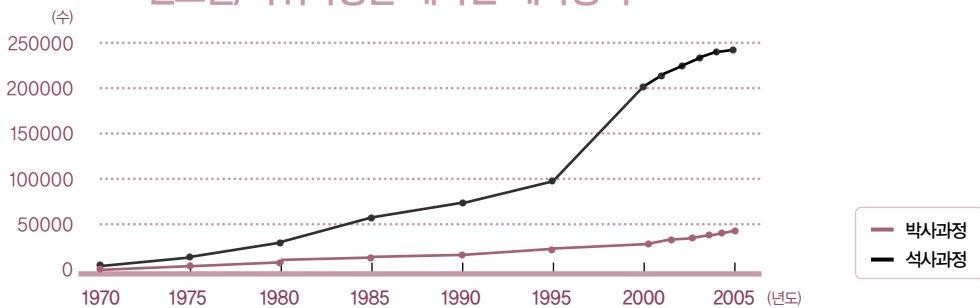


다음으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대학원 재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 석사과정은 6,122명에서 시작해서 2005년 현재 23만 8,753로 약 38.6배 증가했고, 박사과정은 1970년 518명에서 2005년 4만 3,472으로 석사과정보다 훨씬 많은 약 84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대학원의 증가와 더불어 재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비교했을 때 석사과정의 증가폭보다는 박사과정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석사과정의 재학생 수가 박사과정보다 5.5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5 〉 연도별·학위과정별 대학원 재학생 수

구분	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1970	6,640	6,122	518
1975	13,870	12,351	1,519
1980	33,939	29,901	4,038
1985	68,178	57,698	10,480
1990	87,163	72,669	14,494
1995	113,836	95,101	18,735
2000	229,437	197,441	31,996
2001	243,270	209,865	33,405
2002	262,867	226,942	35,925
2003	272,331	234,358	37,973
2004	276,918	236,152	40,766
2005	282,225	238,753	43,472

연도별/학위과정별 대학원 재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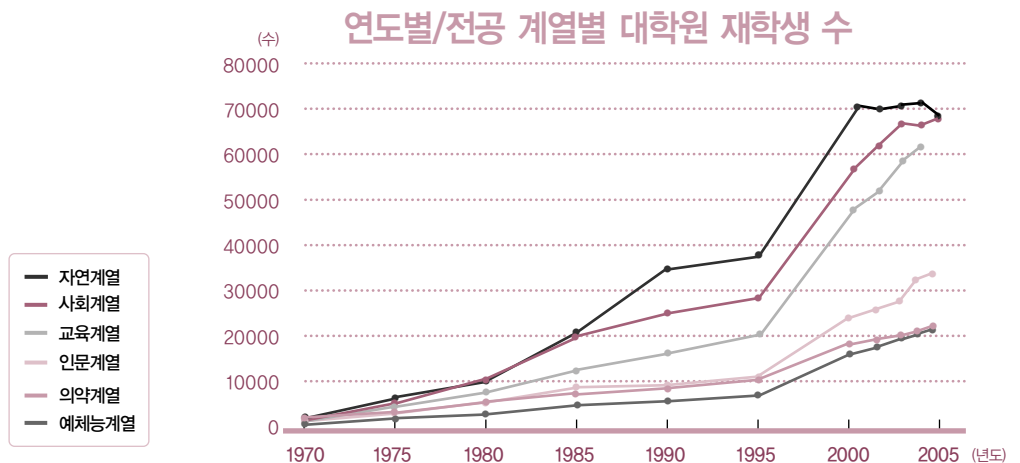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공 계열별 대학원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사회계열에 속한 대학원 재학생 수가 6만 9,884명으로 가장 많고, 자연계열(공학계열 포함)이 6만 7,906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체능계열이 2만 1,351명으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계열별 재학생 수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근에는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의 재학생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계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이공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자연계열의 재학생 수가 2003년 7만 1,708명에서 2004년에 6만 9,163명, 2005년에 6만 7,906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교육계열의 증가폭이 다른 계열보다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 표 6 〉 연도별·전공 계열별 대학원 재학생 수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1970	647	2,850	1,172	879	219	873
1975	1,319	4,667	2,878	1,697	841	2,468
1980	3,683	9,605	9,857	3,861	1,468	5,465
1985	8,099	20,152	18,055	6,275	3,377	12,220
1990	9,422	24,231	25,592	7,971	4,553	15,394
1995	11,168	28,223	38,475	10,307	6,006	19,657
2000	24,291	55,851	70,691	17,517	13,977	47,110
2001	24,867	60,658	70,110	18,968	16,166	52,501
2002	27,770	66,154	71,816	20,041	18,870	58,216
2003	32,226	65,852	71,708	21,655	19,896	60,994
2004	33,570	68,090	69,163	22,944	20,560	62,591
2005	34,607	69,884	67,906	24,509	21,351	64,968

* 자연계열에 공학계열이 포함되어 있음.



다. 연도별 학위취득 및 대학원 졸업 후 진로현황

1990년 이후 전공 계열별로 대학원 석·박사학위 취득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계열이 재학생 수가 많은 만큼 석·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교육계열은 석사학위 취득자에 비해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로 모든 계열별로 석·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박사보다는 석사의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대학원 정원 증가와 더불어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계열 중에서 특히 교육계열의 석사 증가비율이 가장 큰 반면, 예체능계열은 2004년 3,077명에서 2005년에 4,302명으로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문계열의 박사 수도 2004년의 643명에서 2005년 759명으로 2003년 이후 잠시 감소하였던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도 다시 증가하였다.

〈 표 7 〉 연도별·전공 계열별 대학원 석·박사 취득자 수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1990	1,794	365	4,823	424	6,634	909	1,904	674	1,129	26	3,504	83
1995	2,336	588	6,196	664	10,090	1,621	2,492	992	1,507	64	4,777	178
2000	4,276	581	9,782	935	17,574	2,637	3,883	1,598	2,600	176	9,111	226
2001	4,695	533	11,582	883	19,238	2,769	3,957	1,634	2,914	143	10,723	259
2002	5,146	639	13,176	951	19,011	3,050	4,260	1,659	3,380	156	12,018	303
2003	6,921	668	14,219	959	19,973	3,183	4,430	1,905	3,695	220	15,021	305
2004	7,160	643	14,816	1,188	20,026	3,516	4,865	2,012	3,077	300	15,786	349
2005	7,157	759	15,756	1,222	19,679	3,669	5,283	2,180	4,302	392	16,562	380

* 자연계열에 공학계열이 포함되어 있음.

다음으로 연도별 대학원 졸업 후 진로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는 취업자가 94.1%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70%를 약간 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녀를 비교했을 때 남자는 취업자의 비율이 줄기도 늘기도 하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만 여자는 1970년 80.8%에서 1990년 56.8%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5년에는 74.3%의 취업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진학자의 경우 2000년 10.2%를 정점으로 2005년까지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아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구직 중에 있는 비율이 1995년 이후 15%를 넘고 있어 해외 유학이 증가하는 반면, 취업을 못하고 구직 중에 있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2005년도를 살펴보면,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6만 8,439명, 박사학위 취득자는 8,602명으로 이 중에서 78%인 6만 280명이 취업을 하고 6%는 진학하였으며, 나머지 16%는 입대하거나 유학 또는 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연도별 대학원 졸업 후 진로현황

구분	석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취득자		졸업 후 진로현황(%)			
	계	여	계	여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기타
1970	2,150	229	-	-	94.1(80.8)	2.4	0.1	3.4
1975	3,090	565	376	9	85.1(66.0)	5.7	1.0	8.1
1980	5,028	991	524	47	72.8(63.4)	10.0	4.2	13.0
1985	16,690	3,091	1,347	138	74.7(61.5)	8.5	5.1	11.7
1990	19,788	4,706	2,481	330	69.5(56.8)	9.6	3.5	17.4
1995	27,398	7,780	4,107	692	76.3(63.3)	9.3	1.3	13.1
2000	47,226	14,971	6,153	1,264	73.2(67.8)	10.2	1.0	15.6
2001	53,109	18,034	6,221	1,480	75.3(69.3)	8.6	0.4	15.7
2002	56,991	21,031	6,758	1,569	76.2(71.7)	8.0	0.5	15.3
2003	64,259	25,592	7,240	1,715	76.2(72.2)	7.7	0.3	15.8
2004	66,720	27,593	8,008	1,952	76.5(71.5)	6.9	0.3	16.3
2005	68,439	29,448	8,602	2,234	78.2(74.3)	6.3	0.3	15.2

주 : 취업자의 괄호 () 안은 여성 학위 취득자의 취업자 비율을 나타냄.

라.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변화 추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70년 이후 분야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수를 정리해 보면, 모든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990년 이후 증가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구 1만 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1970년의 1명 미만에서 최근에는 4~5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9 〉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누계)

구분	인문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의·약학분야	
	학위취득자	인구1만명당 취득자	학위취득자	인구1만명당 취득자	학위취득자	인구1만명당 취득자
1970	160	0.05	259	0.08	2,227	0.71
1975	580	0.17	813	0.23	4,155	1.20
1980	1,053	0.28	1,354	0.36	5,076	1.36
1985	2,043	0.51	2,730	0.68	7,044	1.74
1990	5,101	1.18	6,826	1.57	10,283	2.37
1995	11,031	2.48	13,892	3.12	14,804	3.32
2000	17,751	3.75	25,033	5.30	21,324	4.51
2001	19,167	4.02	27,802	5.83	22,958	4.82

주) 인구 1만 명당 학위 취득자 수=박사학위 취득자 수/인구 수×10,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 인적자원정책 수립과 홍보를 위한 주요 통계 자료

마. 학위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변화 추이

학위별로 박사학위 취득자 수의 변화를 보면, 1980년에 528명이었던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2005년에는 9,029명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공학과 이학이 가장 많은 박사학위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이학, 공학, 교육학, 가정학 분야에서 박사학위자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0 〉 학위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변화 추이

연도 계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문학	37	146	410	652	625	614	661	675	670	702
철학	7	10	29	64	103	87	76	77	71	92
신학	1	1	-	2	18	15	28	27	32	90
경제학	26	33	93	114	113	89	85	108	97	113
정치학	15	13	33	61	74	52	53	69	71	44
법학	21	33	73	93	131	121	128	112	152	131
행정학	4	18	60	78	141	145	158	123	173	186
경영학	9	41	154	228	351	354	351	375	469	445
이학	60	197	409	647	1,116	1,178	1,176	1,219	1,318	1,454
공학	50	238	604	1,125	1,803	1,865	2,106	2,136	2,414	2,543
농학	39	87	121	172	224	242	258	249	257	220
수산학	1	6	3	3	5	10	4	18	10	10
의학	200	423	521	684	1,016	1,015	983	1,155	1,142	1,233
약학	17	27	37	69	77	91	96	110	101	106
수의학	1	6	8	18	32	32	29	49	42	54
치의학	28	60	82	134	192	200	169	216	200	265
한의학	7	30	33	50	158	157	181	232	282	319
보건학	1	7	8	13	65	49	70	61	83	88
교육학	4	24	69	158	206	224	268	255	311	324
간호학	-	-	-	37	65	78	120	99	119	86
가정학	-	-	-	27	40	28	24	23	14	21
기타	-	-	-	-	-	-	153	235	371	503
합계	528	1,400	2,747	4,429	6,558	6,646	7,177	7,623	8,399	9,029

주 : 간호학은 1992년부터, 가정학은 1991년부터, 기타는 2002년부터 통계치가 제시됨.

3. 계열별 대학원 전공에 대한 소개

가. 인문계열

인문계열은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인문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열로서 언어·문학과 인문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문학에는 언어학,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기타아시아어·문학, 영어·문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스페인어·문학, 프랑스어·문학, 기타유럽어·문학, 교양어·문학 등이 있고, 인문과학에는 문헌정보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윤리학이 있다. 2005년 현재 인문계열은 석사과정 1,050개, 박사과정 542개가 운영되고 있고,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1만 950명, 박사과정 1,916명이다. 구체적인 전공별 학과 수와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11 〉 인문계열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2005년 기준)

계열전공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언어학	9	7	64(40)	44(23)	26(13)	8(6)
국어·국문학	106	79	1,701(1,240)	954(589)	462(325)	207(102)
일본어·문학	43	24	533(449)	236(186)	139(119)	42(28)
중국어·문학	61	30	676(511)	226(144)	124(83)	47(25)
기타아시아어·문학	4	1	26(19)	1(1)	15(10)	-
영어·문학	107	74	2,018(1,541)	694(502)	462(356)	126(80)
독일어·문학	31	14	105(74)	47(36)	39(30)	9(7)
러시아어·문학	12	6	80(63)	23(18)	25(18)	3(3)
스페인어·문학	8	3	57(50)	11(9)	18(15)	1(1)
프랑스어·문학	27	13	136(115)	29(25)	48(44)	12(11)
기타유럽어·문학	7	2	50(35)	3(3)	7(7)	-
교양어·문학	8	7	313(293)	51(38)	78(75)	2(2)
문헌정보학	34	14	420(296)	119(66)	109(77)	13(10)
문화·민속·미술사학	59	27	1,248(823)	219(116)	219(144)	9(5)
심리학	93	31	3,793(2,894)	327(212)	1,100(845)	40(23)
역사·고고학	70	49	697(334)	355(136)	177(82)	61(21)
종교학	203	75	15,139(3,213)	1,448(283)	3,602(686)	115(13)
국제지역학	91	36	1,249(688)	251(125)	311(174)	4(1)
철학·윤리학	77	50	835(336)	429(175)	196(86)	60(17)
합계	1,050	542	29,140(13,014)	5,467(2,687)	7,157(3,189)	759(355)

() 안은 여학생 수

나. 사회계열

사회계열은 사회의 여러 모든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에 바탕을 두고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기초학문, 즉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과 같은 학문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계열로서 크게 경영·경제, 법률, 사회과학으로 분류된다. 경영·경제는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이 있고, 법률에는 법학, 사회과학에는 가족·사회·복지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이 있다.

2005년 현재 사회계열은 석사과정 2,055개, 박사과정 674개가 운영되고 있고,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2만 3,061명, 박사과정 3,234명이다. 구체적인 전공별 학과 수와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12 〉 사회계열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2005년 기준)

계열전공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경영학	608	174	23,160(6,105)	2,853(686)	5,914(1,567)	421(68)
경제학	108	57	1,889(486)	443(85)	561(136)	77(6)
관광학	20	7	331(156)	96(37)	75(33)	23(10)
광고·홍보학	36	6	1,096(510)	88(24)	246(116)	9(4)
금융·회계·세무학	99	35	1,640(374)	246(56)	532(110)	49(3)
무역·유통학	142	50	1,997(665)	323(54)	567(144)	67(10)
법학	154	66	5,016(1,096)	1,141(244)	843(206)	128(18)
가족·사회·복지학	258	64	10,700(6,964)	946(618)	2,906(1,874)	100(69)
국제학	33	10	1,067(642)	79(29)	276(165)	5(1)
도시·지역학	45	15	601(149)	120(19)	146(45)	14(3)
사회학	43	24	537(266)	160(83)	113(68)	26(10)
언론·방송·매체학	107	38	2,799(1,107)	396(120)	750(268)	56(13)
정치외교학	76	41	1,498(288)	360(76)	412(56)	37(4)
행정학	326	87	9,123(2,783)	1,179(235)	2,385(694)	210(35)
합계	2,055	674	61,454(21,591)	8,430(2,366)	15,726(5,482)	1,222(254)

() 안은 여학생 수

다. 교육계열

교육계열은 교사와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 일반과 교과교육 원리의 교수 및 연구에 종사할 학자를 배출함을 목표로 하는 계열로서, 교육 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일반은 교육학, 유아교육은 유아교육학, 특수교육은 특수교육학, 초등교육은 초등교육학, 중등교육은 언어교육, 인문교육, 사회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예체능교육으로 되어 있다.

2005년 현재 교육계열은 석사과정 1,640개, 박사과정 211개가 운영되고 있고,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2만 1,787명, 박사과정 1,233명이다. 구체적인 전공별 학과 수와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13 〉 교육계열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2005년 기준)

계열전공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교육학	303	76	20,863(14,379)	1,631(947)	5,974(3,999)	207(105)
유아교육학	93	14	2,436(2,349)	250(237)	708(688)	42(40)
특수교육학	65	12	2,798(2,183)	172(132)	798(594)	27(18)
초등교육학	54	12	7,760(5,488)	64(36)	1,775(1,192)	13(3)
언어교육	275	26	8,822(7,046)	225(157)	2,202(1,634)	17(10)
인문교육	75	9	1,145(784)	92(43)	270(171)	5(1)
사회교육	125	7	2,226(1,421)	45(18)	517(309)	4(-)
공학교육	116	4	2,280(1,201)	19(6)	868(410)	2(1)
자연계교육	361	43	6,990(5,036)	381(173)	1,619(1,071)	44(18)
예체능교육	173	8	6,661(3,977)	108(45)	1,831(1,047)	19(7)
합계	1,640	211	61,981(43,864)	2,987(1,794)	16,562(11,115)	380(203)

() 안은 여학생 수

라. 공학계열

공학계열은 순수자연과학과는 달리 일상생활을 비롯해 산업에 활용되는 공업생산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 육성과 고급 과학기술의 두뇌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자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달리 공학은 기계, 장치 등의 인위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실천행동에 중점을 두는 계열로서,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기타로 나뉜다.

건축은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도시는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운송은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금속은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전자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정밀·에너지는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소재·재료는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통신은 전산학, 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은 산업공학, 화공은 화학공학, 기타는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등이 있다.

2005년 현재 공학계열은 석사과정 1,875개, 박사과정 885개가 운영되고 있고,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1만 4,829명, 박사과정 3,147명이다. 구체적인 전공별 학과 수와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14 〉 공학계열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2005년 기준)

계열전공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건축·설비공학	114	43	2,358(413)	556(111)	741(134)	101(16)
건축학	58	19	1,527(537)	212(54)	455(154)	34(7)
조경학	26	10	300(84)	77(20)	96(40)	20(5)
토목공학	173	73	3,690(190)	798(28)	1,384(86)	203(5)
도시공학	46	18	679(108)	214(23)	202(36)	28(2)
지상교통공학	14	8	285(28)	82(6)	101(15)	11(1)
항공학	24	16	739(67)	192(6)	218(8)	43(1)
해양공학	50	29	604(71)	176(10)	169(19)	53(3)
기계공학	155	82	2,519(93)	855(18)	1,107(26)	243(1)
금속공학	18	11	281(19)	150(9)	125(7)	31(-)
자동차공학	17	7	270(7)	32(2)	82(4)	8(-)
전기공학	78	39	1,682(108)	503(19)	658(49)	166(6)
전자공학	127	60	3,594(290)	1,339(71)	1,710(118)	270(13)
제어계측공학	27	16	220(14)	54(2)	106(18)	15(1)
광학공학	13	3	120(24)	20(3)	25(2)	2(2)

() 안은 여학생 수

표 계속

계열전공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에너지공학	22	19	185(20)	91(7)	46(2)	21(1)
반도체·세라믹공학	12	9	178(22)	94(5)	100(6)	17(-)
섬유공학	16	12	178(60)	66(15)	90(24)	23(1)
신소재공학	50	27	732(107)	250(28)	285(38)	60(2)
재료공학	55	33	828(85)	294(24)	405(46)	94(3)
전산학, 컴퓨터공학	179	103	3,142(565)	1,212(260)	1,369(291)	266(50)
응용소프트웨어공학	31	7	522(93)	29(4)	151(32)	-
정보·통신공학	249	92	4,643(712)	725(109)	1,734(282)	140(17)
산업공학	127	51	2,673(256)	410(35)	939(84)	75(2)
화학공학	120	61	1,579(388)	436(49)	790(194)	156(10)
기전공학	25	12	292(13)	66(3)	116(5)	15(-)
응용공학	48	24	661(124)	211(30)	176(26)	32(-)
교양공학	1	1	230(29)	168(13)	90(10)	11(-)
합계	1,875	885	34,729(4,527)	9,312(964)	13,470(1,746)	2,138(149)

() 안은 여학생 수

마. 자연계열

자연계열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기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연법칙을 개발하는 기초과학인 자연과학에 바탕을 둔다. 자연과학은 우주와 물질의 기원부터 생명현상까지 다양한 물질세계의 원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신지식 창출을 위해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 인력의 양성과 기초과학 발전의 중추적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하는 계열로서,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등으로 구분된다.

농림수산은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 생물·화학·환경은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생활과학은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는 수학, 통계학, 물리·과학, 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교양자연과학으로 나뉜다.

2005년 현재 자연계열은 석사과정 1,192개, 박사과정 786개가 운영되고 있고,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7,231명, 박사과정 2,414명이다. 구체적인 전공별 학과 수와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15 〉 자연계열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2005년 기준)

계열전공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농업학	54	33	524(130)	152(33)	210(41)	75(9)
수산학	12	8	208(50)	86(9)	74(17)	25(4)
산림·원예학	52	38	511(202)	224(58)	188(76)	63(22)
생명과학	127	82	2,025(954)	1,110(374)	787(405)	182(62)
생물학	128	105	1,891(875)	949(327)	759(365)	184(56)
동물·수의학	14	13	469(158)	268(86)	163(39)	56(13)
자원학	65	37	561(132)	188(29)	140(23)	46(6)
화학	87	67	1,391(583)	474(112)	683(291)	160(28)
환경학	153	76	2,524(677)	766(177)	911(230)	157(31)
가정관리학	45	24	626(580)	230(214)	198(190)	51(51)
식품영양학	135	73	1,428(955)	450(295)	562(379)	130(81)
의류·의상학	55	29	899(826)	387(369)	263(241)	69(68)
교양생활과학	3	4	121(109)	43(41)	15(15)	10(7)
수학	61	42	602(277)	298(122)	211(110)	78(36)
통계학	46	33	492(221)	136(47)	252(135)	40(14)
물리·과학	100	84	1,234(279)	680(128)	509(123)	150(21)
천문·기상학	12	13	229(80)	97(28)	62(18)	16(6)
지구·지리학	37	22	408(101)	144(34)	152(40)	21(6)
교양자연과학	6	3	29(6)	11(2)	70(15)	18(4)
합계	1,192	786	16,172(7,195)	6,693(2,485)	6,209(2,753)	1,531(525)

() 안은 여학생 수

바. 의약계열

의약계열은 인간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연구하는 의학과 의약품에 관한 기초 및 응용과학을 다루는 약학이 포함된다. 의학과 약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공통의 목표와 목적을 지니고 있어 상호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병의 예방, 진단과 치료를 위한 단계별 이론과 응용능력을 습득하여 국민의료에 담당하며 향상시키는 인재 양성과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열로서,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의료로 구분된다. 의료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는 간호학, 약학은 약학, 치료보건의료는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으로 나뉜다. 2005년 현재 의약계열은 석사과정 368개, 박사과정 186개가 운영되고 있고,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7,353명, 박사과정 3,031명이다. 구체적인 전공별 학과 수와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16 〉 의약계열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2005년 기준)

계열전공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의학	65	49	5,186(2,044)	4,013(1,042)	2,172(667)	1,237(285)
치의학	27	12	1,697(620)	958(245)	529(156)	257(59)
한의학	21	20	1,220(231)	1,035(165)	481(107)	311(52)
간호학	58	21	1,598(1,566)	396(393)	362(359)	86(85)
약학	44	31	1,213(724)	401(182)	430(269)	115(42)
보건학	67	22	1,948(1,437)	435(271)	668(486)	85(50)
재활학	58	10	2,404(1,898)	183(99)	463(371)	20(7)
의료공학	28	21	482(186)	340(112)	178(48)	69(27)
합계	368	186	16,748(8,706)	7,761(2,509)	5,283(2,463)	2,180(607)

() 안은 여학생 수

사. 예체능계열

예체능 계열은 미적 작품을 형성하는 인간의 창조활동인 예술과 건강한 신체와 운동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육을 바탕으로 한다. 예술이라는 창작과 표현수단을 통해 감동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음악, 미술, 체육, 연극, 영화 등의 영역이 포함된다. 첨단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예술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과 개인건강 유지 및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계열로서, 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으로 구분된다. 디자인은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응용예술은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무용·체육은 무용, 체육, 미술·조형은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연극·영화는 연극·영화, 음악은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으로 나뉜다.

2005년 현재 예체능계열은 석사과정 855개, 박사과정 160개가 운영되고 있고,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6,940명, 박사과정 1,129명이다. 구체적인 전공별 학과 수와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17 〉 예체능계열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2005년 기준)

계열전공	학과 수		재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디자인일반	20	10	819(645)	159(72)	189(163)	4(1)
산업디자인	54	3	535(271)	25(9)	167(96)	3(2)
시각디자인	21	1	517(337)	12(5)	107(67)	-
패션디자인	19	2	234(206)	17(14)	64(57)	1(1)
기타디자인	135	12	2,570(1,634)	266(143)	468(323)	9(6)
공예	35	-	501(341)	-	191(125)	-
사진·만화	30	1	575(257)	4(1)	94(32)	-
영상·예술	83	21	2,264(1,441)	298(143)	395(251)	18(10)
무용	31	8	544(474)	127(115)	117(101)	3(2)
체육	145	68	2,670(760)	1,349(366)	599(199)	304(92)
순수미술	92	7	2,079(1,500)	155(85)	552(390)	6(2)
응용미술	10	2	150(100)	41(25)	47(35)	12(6)
조형	31	3	633(409)	72(37)	124(101)	9(2)
연극영화	19	4	336(185)	61(34)	56(31)	4(3)
음악학	67	13	2,643(2,225)	202(173)	591(510)	16(147)
국악	14	3	375(296)	16(10)	69(50)	1(-)
기악	11	-	304(298)	-	63(63)	-
성악	4	-	52(45)	-	21(20)	-
작곡	4	-	25(23)	-	8(7)	-
기타음악	24	3	712(541)	18(8)	110(79)	2(-)
합계	855	160	18,529(11,988)	2,822(1,240)	4,032(2,700)	392(141)

() 안은 여학생 수

II.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조사에서 나타난 학과별 대학원의 세계

1.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실태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의 교육적·직업적 경험,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 학위 취득 이후의 계획과 석·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졸업 후 진로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석·박사 과정 재학생에게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미래의 직업세계」(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간)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가. 조사 대상 규모

본 조사는 전국 총 91개 대학 2,676명(석사 1,746명, 박사 9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사항, 대학원 입학, 대학원 교육, 학위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2006년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학과별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의 규모는 다음 <표 18>과 같이, 석사재학생 1,266명, 박사재학생 640명, 석사졸업생 1,388명, 박사졸업생 823명이었다.

나. 학과별 정보의 항목

본 대학원의 세계에는 다양한 조사 내용 중에서 각 전공별 대학원의 현황과 진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고, 각 항목은 전공 만족도, 진로계획, 연봉, 취업전망, 취업현황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여기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재학생은 대학원에서의 생활(수업, 실험·실습, 각종 연구활동, 대인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제시하였고, 졸업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위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전공만족도 척도는 1점: 매우 불만족한다, 2점: 대체로 불만족한다, 3점: 대체로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석사재학생 2.87, 석사졸업생 2.84, 박사재학생 2.77, 박사졸업생 2.86의 전공만족도를 나타냈다.

2) 진로계획

진로계획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학위 취득 이후 어떤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조사되었다. 석사과정은 국내 박사과정 진학, 외국 박사과정 진학, 취업과 박사과정 병행, 취업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고, 박사과정은 취업, 국내 포닥과정, 해외 포닥과정, 미정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3) 연봉

연봉은 졸업생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전체 졸업생의 연봉 평균은 석사졸업생이 약 3,064만원, 박사졸업생 약 4,439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후 2년 이내 (2004년 8월, 2005년 2월 졸업생)의 상황이므로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과 단위학교별 조사대상이 일부 학교에서 30명을 넘지 않는다는 한계를 고려하면서 이 결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4) 취업전망

취업전망은 석·박사과정을 다르게 조사하였다. 석사과정은 재학생과 졸업자의 전공 분야에 대한 취업전망을 제시하였고, 박사과정은 재학생의 대학교원로의 취업전망, 졸업자의 대학교원 및 전체 취업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취업전망 척도는 1점: 매우 어렵다(매우 낮다), 2점: 대체로 어렵다(낮다), 3점: 대체로 밝다(높다), 4점: 매우 밝다(매우 높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대학교수의 취업전망은 석사재학생 2.88, 석사졸업생 2.74, 박사재학생 1.79, 박사졸업생 1.61로 나타났으며, 전체 취업처의 취업전망은 박사재학생 2.55, 박사졸업생 2.44로 응답하였다.

5) 취업현황

취업현황은 석·박사 졸업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및 고용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총 학위취득자 수 중에서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수(정규직·비정규직 취업자, 구직자, 파트타이머)의 비율, 취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자 중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은 전체 학위취득자 중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 표 18 〉 학과별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응답현황

계열	학과	재학생		졸업생	
		석사재학생	박사재학생	석사졸업생	박사졸업생
인문계열	국어국문학	38	24	50	45
	일본어문학	15	9	29	12
	중국어,문학	27	10	17	3
	영어,문학	40	19	34	21
	유럽어,문학	24	12	18	5
	역사,철학	21	17	46	18
사회계열	심리학	44	13	47	17
	경영학	48	34	86	48
	경제학	38	18	42	16
	법학	48	28	44	34
	사회학	18	12	21	8
	행정학	20	14	24	36
교육계열	교육학	52	24	42	49
공학계열	건축,설비공학	49	22	49	30
	토목공학	47	21	50	39
	기계공학	63	24	72	42
	전기공학	44	21	38	27
	전자공학	71	34	74	29
	전산학, 컴퓨터공학	64	34	75	42
	정보,통신공학	25	12	62	40
	화학공학	38	19	45	24
이학계열	생명과학(생물학,생명공학)	81	53	92	48
	화학	64	25	56	33
	환경학	37	10	49	20
	수학	35	26	32	26
	물리,과학	46	27	49	31
의약학계	의학	29	19	71	47
	약학	34	16	52	27
기타계열	디자인학	17	8	22	4
	기타	89	35	0	2
합계		1266	640	1388	823

학과별 대학원의 세계

가. 인문계열

- 1) 국어국문학
- 2) 일본어 · 문학
- 3) 중국어 · 문학
- 4) 영어 · 문학
- 5) 유럽어 · 문학(독어독문, 불어불문)

나. 사회계열

- 1) 심리학
- 2) 역사 · 철학
- 3) 경영학
- 4) 경제학
- 5) 법학
- 6) 사회학
- 7) 행정학

다. 교육계열

- 1) 교육학

라. 공학계열

- 1) 건축 · 설비공학

- 2) 토목공학
- 3) 기계공학
- 4) 전기공학
- 5) 전자공학
- 6) 전산학 · 컴퓨터공학
- 7) 정보 · 통신공학
- 8) 화학공학

마. 자연계열

- 1) 생물과학(생물학, 생명공학)
- 2) 화학
- 3) 환경학
- 4) 물리 ·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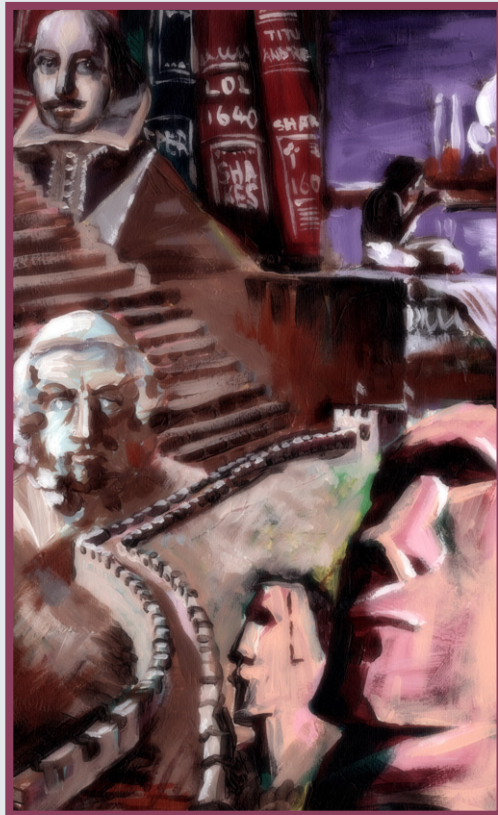
바. 의약계열

- 1) 의학
- 2) 약학

사. 예체능계열

- 1) 디자인학

인문계열



국어국문학

일본어 ·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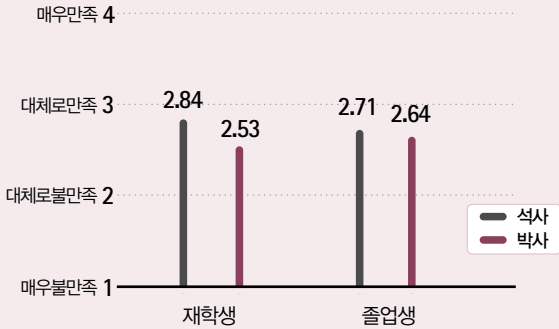
중국어 · 문학

영미어 · 문학

유럽어 · 문학 (독어독문, 불어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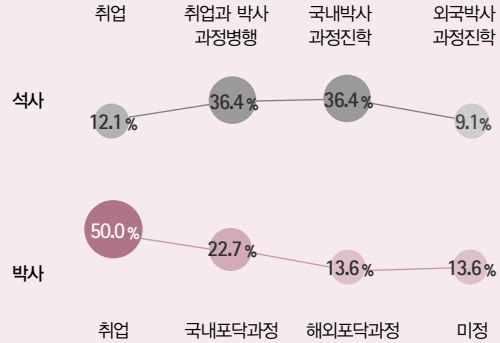
국어국문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국어국문학은 인문학의 폭넓은 지식 위에 국어학 및 국문학(고전문학·현대문학)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지향한다. 국어국문학은 우리말과 글의 올바른 사용과 기원, 특성을 연구하고, 나아가 다른 외국어와 비교·대조해서 우리말이 가진 개성을 탐구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말에 담긴 지혜와 전통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학자로서 학계나 학술 연구기관에 진출하는 경우와 시인이나 소설가 등 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학의 국문과 교수와 언론계, 광고계에도 진출할 수 있으며, 창작활동, 문화비평, 영화비평, 연극비평 등의 비평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84)가 박사(2.53)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도 석사(2.71)가 박사(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국내 박사 진학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은 9.1%였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포닥과정이 36.3%를 차지했다.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770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2,875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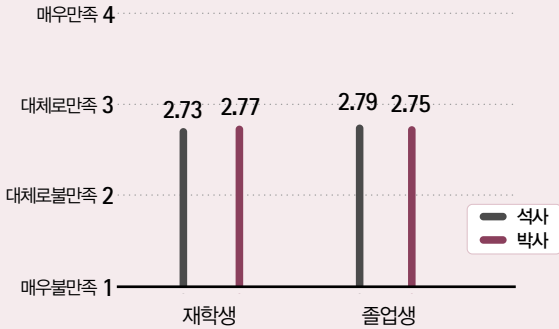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35로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2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1.98로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1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 또한 1.98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40.0%로 낮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95.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많은 부분 취직하고 있는 것 같고, 고용률 또한 38.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100.0%로 매우 높았고, 취업률과 고용률도 각각 97.8%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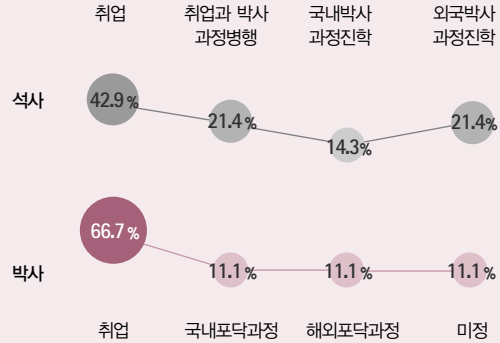
일본어 · 문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일본어문학은 실용적인 일본어 능력과 함께 일본의 어문학, 문화에 대한 심화된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인성과 소양을 갖추어서 현대의 정보화, 국제화, 경쟁화 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발전과 한·일 국제문화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일본어학에서 일본어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개별 언어로서 일본어가 갖는 언어적 특성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연구하며, 일본문학에서 시대별·장르별 다양한 일본 문학작품 연구를 통해 일본, 일본인 또는 일본문화의 정체성을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보편성 이해와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2. 졸업 후 진로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교육계, 언론계, 통역, 유학 등의 여러 방면의 진로가 있다. 아울러 국내 및 일본 기업체 및 무역회사, 회사원, 번역가, 외교관, 대학교수, 연구자 등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고, 최근에는 여행사나 일본에서 국제 교류원으로 직접 활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2.77)가 석사(2.73)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졸업생은 석사(2.79)가 박사(2.7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도 21.5%나 되었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포닥과정이 22.2%로 나타났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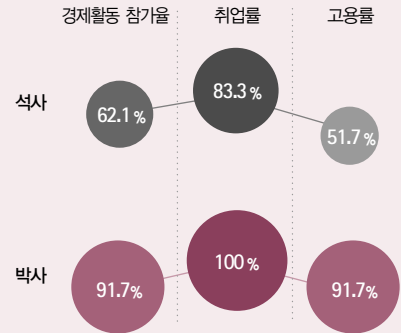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2,820** 만원

박사 **3,963** 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820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3,963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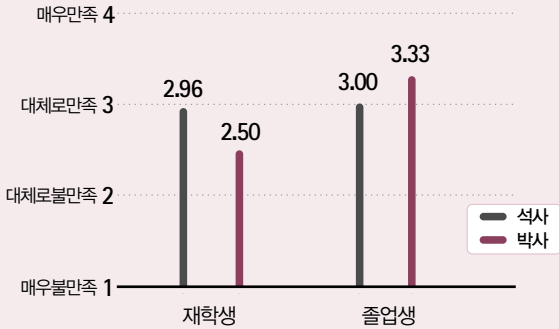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46으로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0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1.93으로 매우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5으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 또한 2.00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2.1%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8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51.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1.7%였으며, 취업률과 고용률도 각각 100.0%, 9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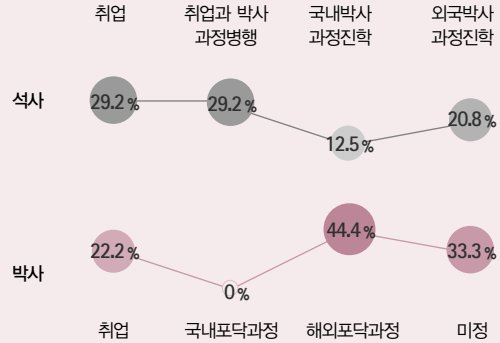
중국어 · 문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진수를 올바르게 체득함으로써 동양의 정신적 근간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사회와 인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중국 관련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어 구사능력과 중국 문학 및 문화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은 크게 중국문학과 중국어학으로 구분되어 수학한다.

2. 졸업 후 진로

학계, 교육계, 외교관, 언론계, 무역회사 등으로의 다양한 진출이 가능하며, 중국계 은행 및 중국계 현지 법인, 무역회사, 호텔, 관광안내 분야 등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96)가 박사(2.50)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졸업생은 박사(3.33)가 석사(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29.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도 20.8%나 되었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해외포닥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이 22.2%로 나타났다.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014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3,800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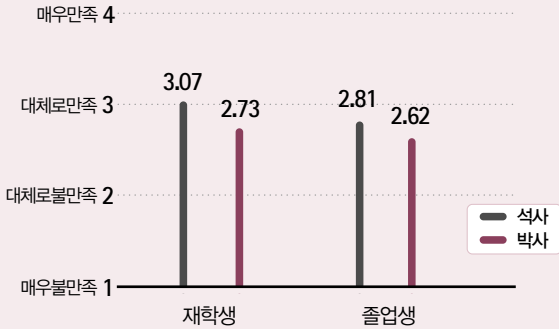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28로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7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13으로 매우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2.00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 또한 2.00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0.6%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9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64.7%로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100.0%였으며, 취업률과 고용률도 각각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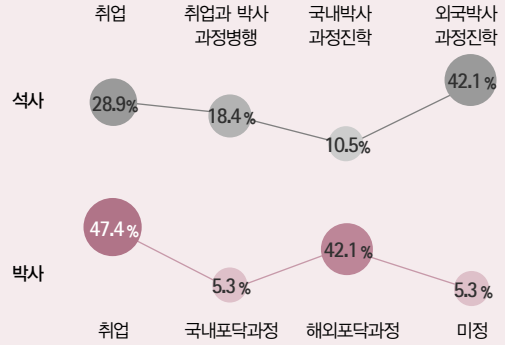
영미어 · 영문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영미어문학은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영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학문으로서 영어학과 영문학을 깊이 있고 폭넓게 교수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영어학의 영문법, 영어발달사, 영어음성학과 영문학의 시, 소설, 희곡, 비평 중에서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심화시켜 나간다. 또한 영어에 관한 실제적·이론적 지식을 연마하며 영미권 문학과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요청되는 실무적 능력과 인문학적 교양을 겸비한 영어전문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졸업 후 진로

국가고시나 각종 공무원 시험을 통해 외교, 통상, 일반 행정 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관심 분야에 따라 외국인 업체 및 외국 공관, 해외주재 한국공관 및 해외개발업체, 통역 및 번역 분야, 창작이나 비평 분야, 통상업체, 외국계 언론·금융 분야, 일반 기업체의 수출입 부서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은 석사(3.07) 박사(2.73)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박사(2.62)가 석사(2.81)보다 낮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외국 박사과정 진학이 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취업이 28.9%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 포닥과정 진학이 4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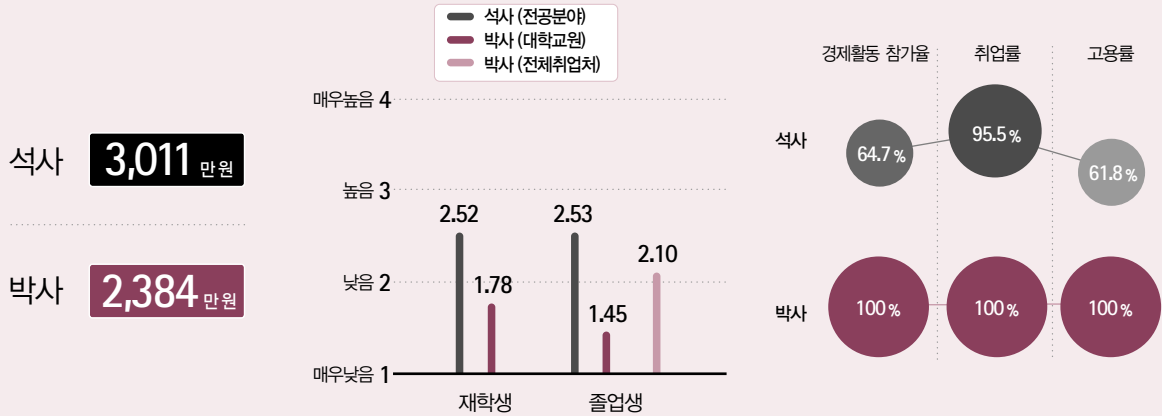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011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2,384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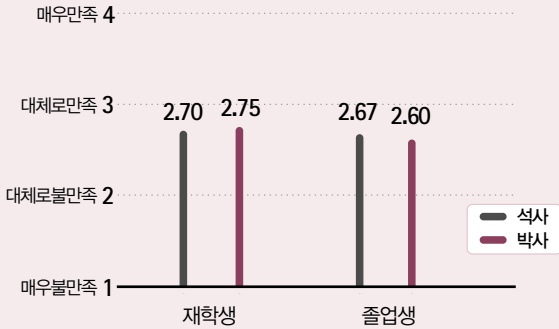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52로 보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8로 아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53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45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 또한 2.10으로 대학교원 보다는 다른 취업처로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지만, 전반적으로 재학생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4.7%로 나타났고, 취업률은 9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61.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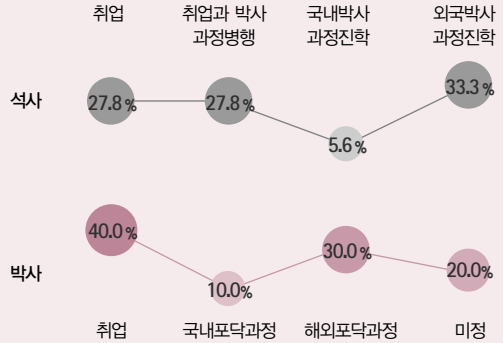
유럽어 · 문학(독어독문, 불어불문)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외국어 · 문학(독어독문, 불어불문 등)은 각 외국어의 습득과 아울러 각 외국어권의 문화를 익히며, 각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이해하고 문학에 대한 이해, 수용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과 더불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해외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업, 방송 · 언론계, 문화계, 유럽(독일, 프랑스 등)계 기업, 해외업무, 담당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관련 학계 및 교육사업 등에서 활약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재학생은 박사(2.75)가 석사(2.7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졸업생은 석사(2.67)가 박사(2.6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외국박사 진학이 33.3%로 나타났다. 반면,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 포닥이 30.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미정이 20.0%로 교육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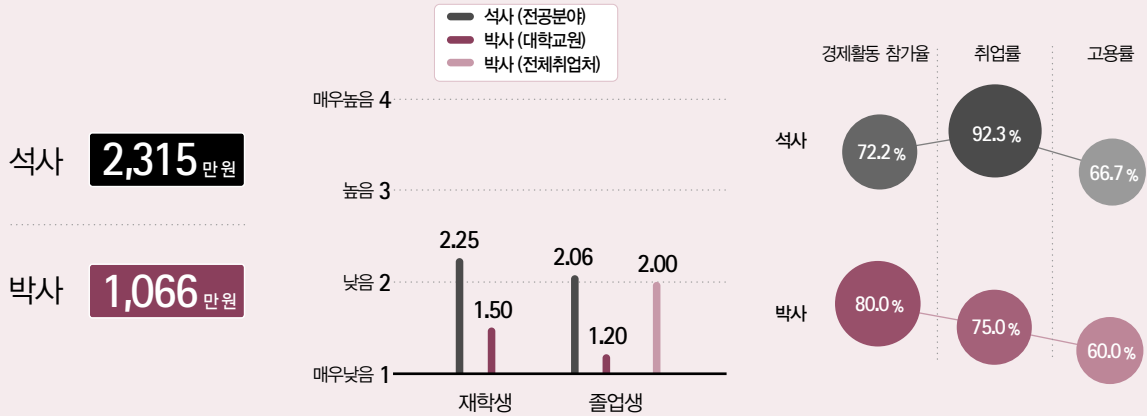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315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1,066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25로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0으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06으로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20으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 또한 2.00으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2.2%로 낮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92.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66.7%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0.0%로 높게 나타났고, 취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75.0%와 60.0%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Tip 정보

1) 진학동기

인문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박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69	① 전공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9	
교수가 되기 위해서 3.09	②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4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36	③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4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26	④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26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80	⑤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81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79	⑥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76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51	⑦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9	
	순위	

인문계열	석사 학위 취득자의 석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69	①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48	
교수가 되기 위하여 2.56	②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52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20	③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11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77	④ 교수가 되기 위하여 2.09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1.63	⑤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1.95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1.58	⑥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66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41	⑦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6	
	순위	

*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그러함 4: 매우 그러함

2) 동일 전공 진학 비율

인문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전공이 석사 전공과 동일한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91.3	①	동일 전공자	87.7
타 전공자	8.7	②	타전공자	12.3
		순위		

인문계열

석사 전공과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학문적 매력	46.2	①	학문적 매력	40.9
적성에 맞아서	30.8	②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22.7
기타	7.7	③	적성에 맞아서	18.2
현재 하고 있는 일 · 직장에 필요해서	7.7	④	기타	8.2
석사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7.7	⑤	석사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4.5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0.0	⑥	현재 하고 있는 일 · 직장에 필요해서	3.6
학위취득 용이성	0.0	⑦	학위취득 용이성	0.9
박사과정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0.0	⑧	박사과정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0.9
		순위		

인문계열

학부와 석사의 동일 전공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77.1	①	동일 전공자	81.3
타 전공자	22.9	②	타 전공자	18.7
		순위		

학문적 매력 47.7	① 학문적 매력 45.4
적성에 맞아서 34.1	② 적성에 맞아서 27.7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6.8	③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21.2
기타 4.5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필요해서 1.5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필요해서 2.3	⑤ 학부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1.5
학부때 복수전공을 해서 2.3	⑥ 학위취득 용이성 1.2
대학원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2.3	⑦ 기타 0.8
학위취득 용이성 0.0	⑧ 학부때 복수전공을 해서 0.4
학부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0.0	⑨ 대학원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0.4
	순위

교수진이 좋아서 27.3	① 교육여건이 좋아서 22.8
교육여건이 좋아서 18.2	②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5.3
기타 12.1	③ 교수진이 좋아서 14.3
거주지와 인접하여 12.1	④ 기타 11.1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9.1	⑤ 거주지와 인접하여 9.5
석사취득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9.1	⑥ 명성이 높아서 5.8
입학하기가 쉬워서 6.1	⑦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4.8
학비가 저렴해서 3.0	⑧ 입학하기가 쉬워서 4.2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3.0	⑨ 학비가 저렴해서 3.7
명성이 높아서 0.0	⑩ 석사취득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3.2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0.0	⑪ 직장과 인접하여 2.1
직장과 인접하여 0.0	⑫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1.1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0.0	⑬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1.1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0.0	⑭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1.1
	순위

인문계열

동일 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68.3	① 동일 대학 진학 77.0
타 대학 진학 31.7	② 타 대학 진학 23.0

순위

인문계열

학부와 동일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59.5	① 동일 대학 진학 66.8
타 대학 진학 40.5	② 타 대학 진학 33.2

순위

인문계열

학부 대학과 다른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이유 (단위 : %)

전 체

교육여건이 좋아서 25.3	① 교육여건이 좋아서 22.4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21.3	②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15.1
명성이 높아서 14.7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4.8
교수진이 좋아서 12.0	④ 교수진이 좋아서 13.0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6.7	⑤ 명성이 높아서 12.6
기타 5.3	⑥ 학비가 저렴해서 6.4
거주지와 인접하여 4.0	⑦ 기타 4.1
학비가 저렴해서 2.7	⑧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3.2
전형시기가 맞아서 2.7	⑨ 거주지와 인접하여 2.7
입학하기가 쉬워서 1.3	⑩ 입학하기가 쉬워서 2.7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1.3	⑪ 직장과 인접하여 0.9
직장과 인접하여 1.3	⑫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0.9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1.3	⑬ 전형시기가 맞아서 0.5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0.0	⑭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0.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취득 0.0	⑮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취득 0.2

순위

3) 학비 조달 방법

인문계열	박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37.9	①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36.0
개인 저축	17.5	② 개인 저축 18.2
장학금	13.6	③ 장학금 14.5
배우자 지원	10.7	④ 부모 지원 10.8
부모 지원	8.7	⑤ RA 4.8
TA	5.8	⑥ 배우자 지원 4.2
대출	3.9	⑦ TA 3.7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1.9	⑧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3.4
RA	0.0	⑨ 대출 3.0
기타	0.0	⑩ 기타 0.6
학과·실험 조교	0.0	⑪ 프로젝트 참여 0.6
프로젝트 참여	0.0	⑫ 학과·실험 조교 0.1
		순위

인문계열	석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34.0	①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34.8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20.1	② 장학금 22.4
장학금	17.5	③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12.2
RA·TA를 통해	11.3	④ RA·TA를 통해 12.1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11.3	⑤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8.7
은행대출	3.6	⑥ 은행대출 4.8
현재 재직 직장 지원	2.1	⑦ 현재 재직 직장 지원 3.4
기타	0.0	⑧ 기타 0.9
학과 및 실험 조교	0.0	⑨ 학과 및 실험 조교 0.4
BK 지원	0.0	⑩ 프로젝트 참여 0.3
프로젝트 참여	0.0	⑪ BK 지원 0.1
		순위

4) 근무형태 및 취업기관

인문계열

박사학위자의 근무형태 (단위 : %)

전 체

파트타임직	42.6	① 풀타임 정규직(정년 보장)	55.5
풀타임 정규직(정년 보장)	29.7	② 풀타임 비정규직(정년 비보장)	20.9
풀타임 비정규직(정년 비보장)	21.8	③ 파트타임직	14.2
포스트닥	4.0	④ 포스트닥	7.4
기타	1.0	⑤ 개인사업	1.7
개인사업	1.0	⑥ 기타	0.2
		순위	

인문계열

박사학위자의 취업기관 (단위 : %)

전 체

4년제 대학	57.6	① 4년제 대학	30.6
초·중·고등학교	14.1	②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1.3
기타	7.1	③ 국내 대기업	7.6
대학 연구소	4.0	④ 초·중·고등학교	6.7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0	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6.5
2년제 대학	3.0	⑥ 국내 중소기업	6.1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3.0	⑦ 기타	6.0
민간기업체 연구소	2.0	⑧ 민간기업체 연구소	4.6
개인 사업(창업)	2.0	⑨ 2년제 대학	4.4
국내 중소기업	1.0	⑩ 대학 연구소	4.0
비영리 민간기구	1.0	⑪ 의료 기관	4.0
학원	1.0	⑫ 개인 사업(창업)	3.6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0.0	⑬ 비영리 민간기구	1.5
국내 대기업	0.0	⑭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4
외국계 기업	0.0	⑮ 공기업·공공투자기관	0.7
의료 기관	0.0	⑯ 외국계 기업	0.5
공기업·공공투자기관	0.0	⑰ 학원	0.2
법률 사무소	0.0	⑱ 법률 사무소	0.1
군대	0.0	⑲ 군대	0.1
		순위	

인문계열

석사학위자의 진로상황 (단위 : %)

전 체

박사과정 중	31.4	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6.2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19.9	② 박사과정 중	15.3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2.0	③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1.7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9.4	④ 구직중	4.7
구직중	7.9	⑤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3.3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6.8	⑥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2.8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5.8	⑦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2.8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4.7	⑧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2.0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2.1	⑨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1.2

순위

인문계열

석사학위자의 취업 기관 (단위 : %)

전 체

4년제 대학	18.4	① 국내 대기업	22.3
기타	15.5	② 국내 중소기업	21.5
초·중·고등학교	13.6	③ 의료기관	7.3
개인 사업(창업)	8.7	④ 4년제 대학	7.2
국내 중소기업	6.8	⑤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6.9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6.8	⑥ 기타	5.8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5.8	⑦ 민간기업체 연구소	5.4
외국계 기업	4.9	⑧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8
비영리 민간기구	4.9	⑨ 개인 사업(창업)	4.2
2년제 대학	3.9	⑩ 외국계 기업	3.3
대학 연구소	3.9	⑪ 초·중·고등학교	3.2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2.9	⑫ 비영리 민간기구	1.7
학원	2.9	⑬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5
프리랜서	1.0	⑭ 2년제 대학	1.3
민간기업체 연구소	0.0	⑮ 대학 연구소	1.3
국내 대기업	0.0	⑯ 학원	0.9
의료기관	0.0	⑰ 공기업·공공투자기관	0.6
공기업·공공투자기관	0.0	⑱ 법인 단체	0.2
법인 단체	0.0	⑲ 벤처 기업	0.2
벤처 기업	0.0	⑳ 군대	0.2
은행	0.0	㉑ 프리랜서	0.1
법률 사무소	0.0	㉒ 은행	0.1
국제 기구	0.0	㉓ 법률 사무소	0.1
군대	0.0	㉔ 국제 기구	0.1

순위

5) 구직시 취업정보 출처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채용회사 홈페이지	신문광고	기타	계
4년제 대학	11.8	35.3	20.6	2.9	5.9	23.5	100.0
초·중·고등학교	100.0						100.0
민간기업체 연구소						100.0	100.0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00.0	100.0
개인 사업(창업)			100.0				100.0
기타	16.7	50.0				33.3	100.0

석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헤드헌터	채용회사 홈페이지	기타	계
4년제 대학	40.0	40.0	10.0			10.0	100.0
2년제 대학	100.0						100.0
초·중·고등학교		14.3	42.9		28.6	14.3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33.3		66.7				100.0
대학 연구소						100.0	100.0
국내 중소기업		100.0					100.0
외국계 기업	33.3			33.3	33.3		100.0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6.7	33.3			50.0	100.0
개인 사업(창업)		75.0	25.0				100.0
비영리 민간기구		50.0	50.0				100.0
학원		100.0					100.0

6) 향후 취업 전망

인문계열

박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전 체

국내 전체 취업처 1.97	①	국내 전체 취업처 2.44
국내 대학교수 취업 1.50	②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71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41	③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1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28	④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3

순위

인문계열

석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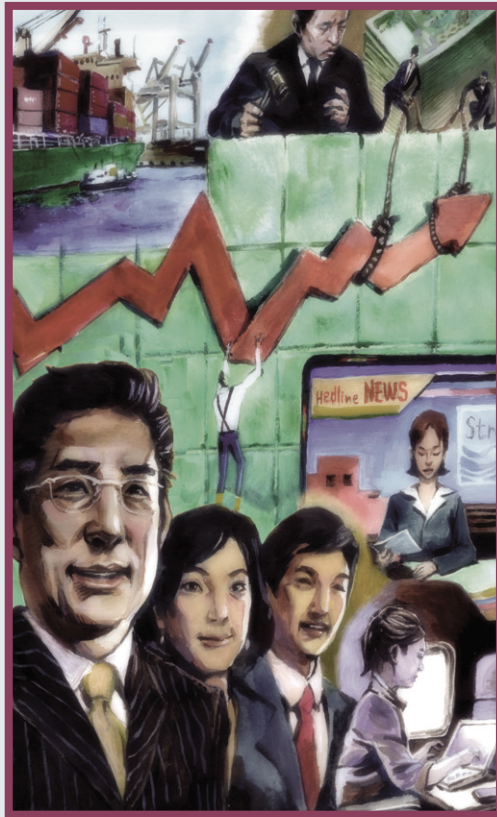
전 체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15	①	전공 분야로의 취업 2.74
전공 분야로의 취업 2.09	②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57

순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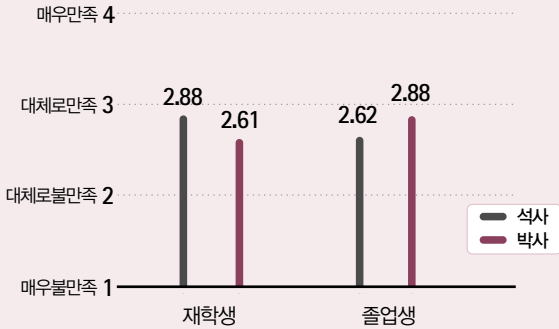
사회계열



심리학
역사·철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행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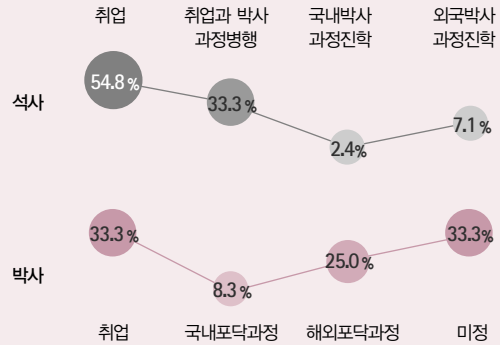
심리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심리학은 실험, 관찰, 면접, 조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행동의 원리를 규명하고 응용하려는 학문이다. 또한 심리학은 인간행동과 관련된 제반 학문들, 즉 경영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등 수많은 학문에 기초이론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기초학문으로서,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심리학적 지식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인성회복 및 사회화를 돕는 데 기여할 인재양성에 그 목표를 둔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후 종합병원 정신과의 임상심리학자, 각종 연구소나 인간공학적 접근이 가능한 기관의 연구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의 상담전문가, 학교 및 각 기관의 상담교사 또는 상담위원, 기업체의 인사, 노무관리, 교육훈련 전문가, 또는 홍보 및 광고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일부 기업체에 상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최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과 같은 청소년범죄의 증가로 인해 이를 담당할 인력수요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담가로 진출할 경우 향후 고용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88)가 박사(2.61)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박사(2.88)가 석사(2.62)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은 7.1%였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33.3%였고, 해외 포닥과정이 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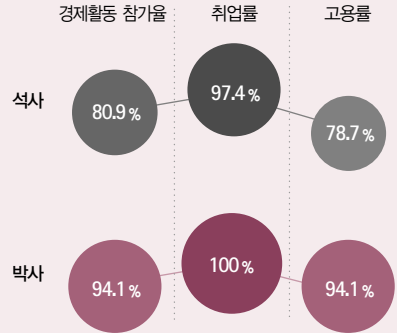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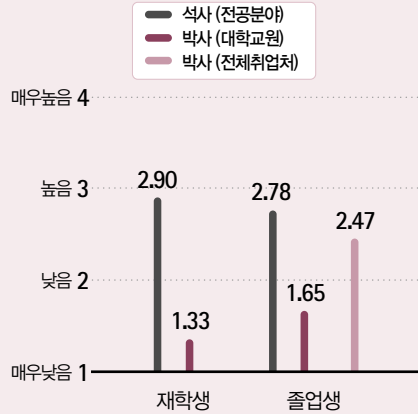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2,451** 만원

박사 **2,896** 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451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2,896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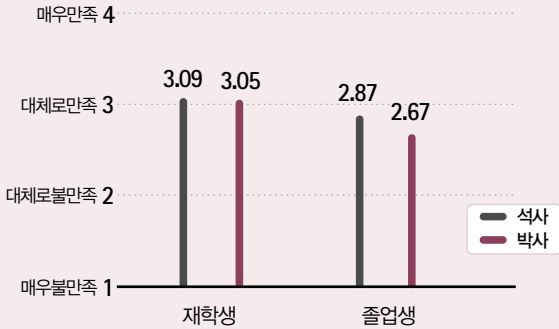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90으로 비교적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33으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78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65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47로 나타났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0.9%로 높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97.4%였으며, 고용률은 78.7%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4.1%였으며, 취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100.0%와 94.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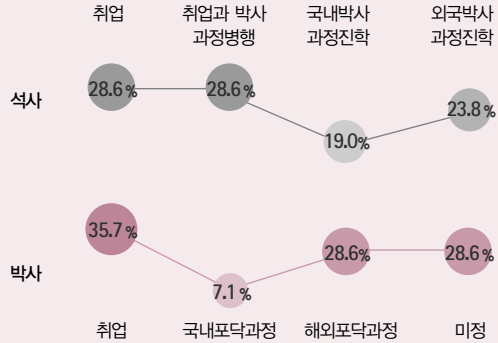
역사 · 철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역사·철학은 인간사회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천의 기록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는 종적으로 인류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횡적으로 당대 사회와 인간을 분석하여 인간 및 사회 각각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인간행위와 사회발전의 지표와 방향을 모색하려는 학문이다. 역사·고고학은 문제를 발견하는 통찰력, 문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분석·해결하는 종합적인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고, 역사학의 종합적 사고와 창의력 계발을 통해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도적 능력 배양과 사회와 학문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졸업 후 진로

사학자로서 학계에 남아 대학이나 각종 역사 관련 전문연구기관(국사편찬위원회, 편수관, 박물관)에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역사학적 안목을 바탕으로 행정관료, 무역·외교 분야 등의 실사회로 진출하기도 하고, 일반 기업체로 진출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계, 방송계, 언론계로의 진출이 두드러져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방송작가 등으로 다수 진출하고 있고, 유관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진출하여 학문과 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 우수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3.09)가 박사(3.05)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도 석사(2.87)가 박사(2.67)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도 23.8%나 되었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내, 해외 포닥과정이 각각 7.1%와 28.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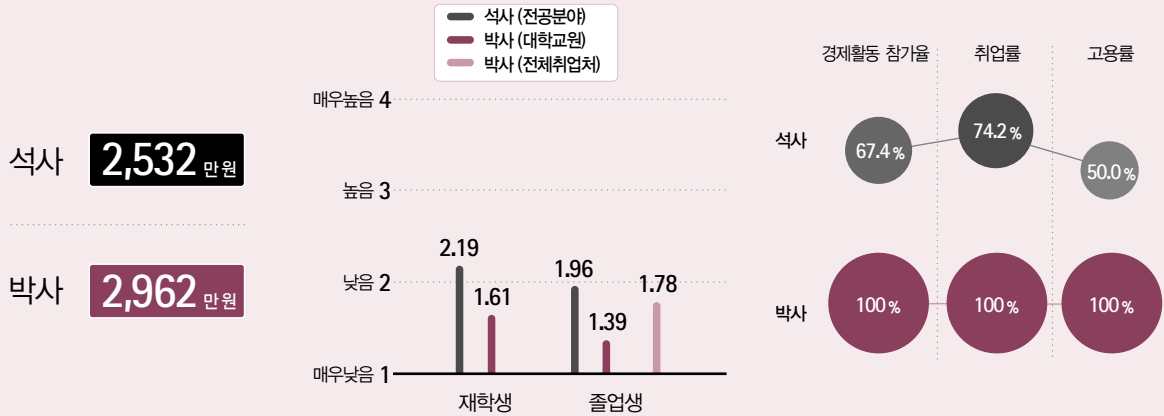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532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2,962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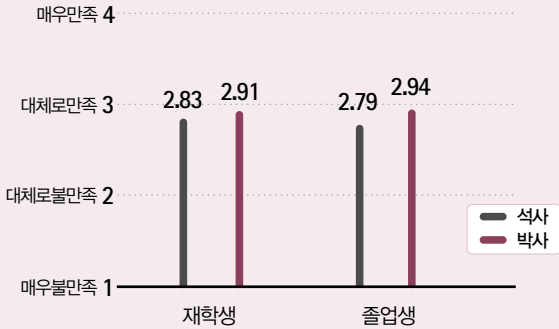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19로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61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1.96으로 매우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39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 또한 1.78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7.4%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74.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고용률 또한 50.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취업률과 고용률도 각각 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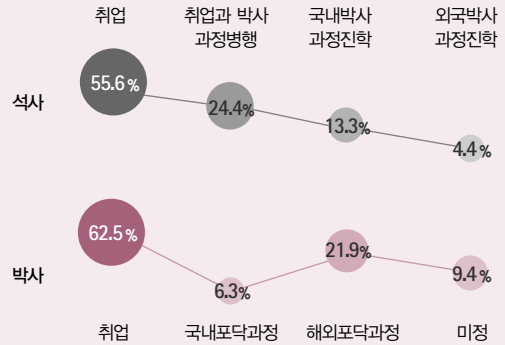
경영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경영학은 현대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비롯한 각종의 영리 및 비영리 조직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그 응용방법을 습득하며, 또한 전인적 인격의 함양에 노력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경영학과의 전공 분야는 인사, 조직, 생산, 계량, 마케팅, 재무 분야로 나뉘며,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경영학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고급이론 및 응용방법을 탐구함으로써 미래사회 지도자로서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을 졸업한 뒤 산업경영연구소, 경영문제연구소, 기업경영연구소, 경영과학연구소, 해외마케팅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이나 국책연구소, 대학의 교수 등의 연구직으로 진출할 수 있고,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으로 많이 진출한다. 또한 언론계의 경제부 내지 경제신문이나 경제잡지 기자로 진출하기도 한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2.91)가 석사(2.83)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도 박사(2.94)가 석사(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5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은 4.4%로 적었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외국 포닥과정이 21.9%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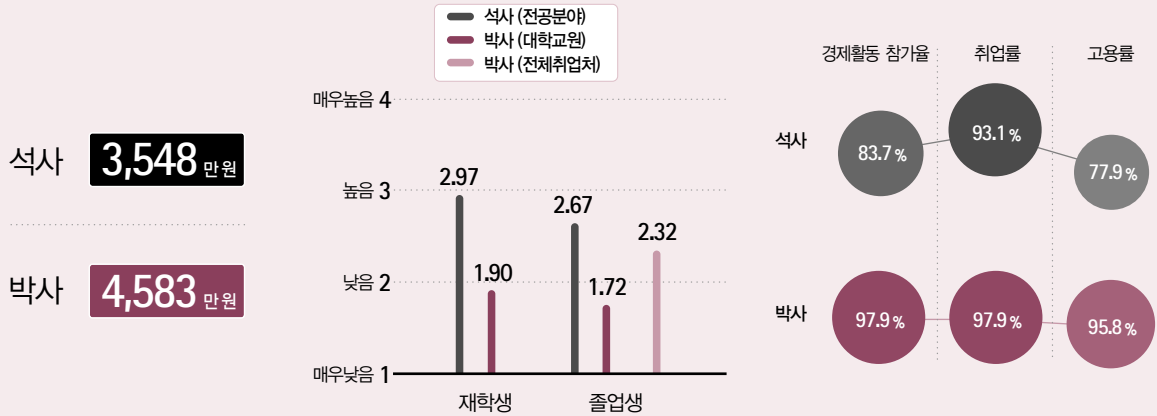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548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583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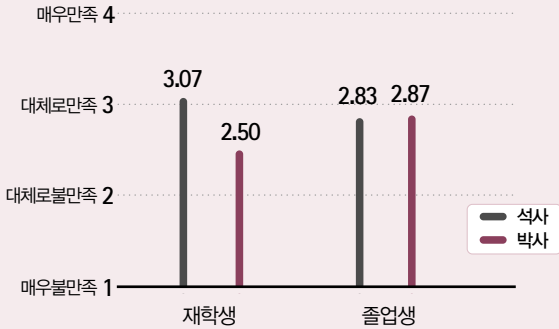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97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90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67로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2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 또한 2.32로 교원보다는 다른 방향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3.7%로 높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93.1%로 높게 나타났지만, 고용률은 77.9%로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7.9%로 높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97.9%, 고용률은 95.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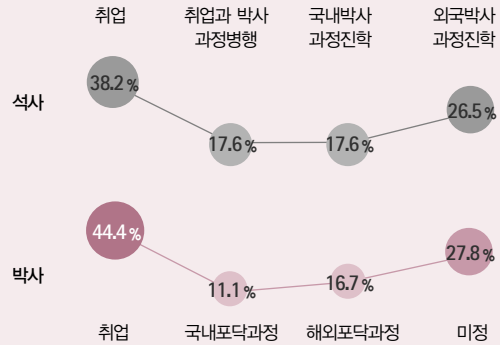
경제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경제학은 인간의 물질생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학문으로서, 현대사회의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실천적인 학문 분야이며, 사회과학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 인접 사회과학 분야 및 경영학 등에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에서는 한 나라의 자원이 분배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공평한 소득분배 등 제반 경제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제이론의 기본적 원리와 체계를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의 제반 경제문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을 졸업한 경제학도의 진출분야는 다양하게 열려 있다. 은행, 기업, 행정 분야로의 진출은 물론이고, 각종 경제 관련 연구 기관, 언론계, 경제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증권계, 경제외교가 중시되는 외교계 등 진출 분야가 다양하며, 재경분야의 행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경영학과 회계과목을 수강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기도 한다.

● 전공 만족도

석사과정의 경우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은 석사(3.07)가 박사(2.50)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졸업생은 박사(2.87)가 석사(2.8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 유학은 26.5%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국 유학도 16.7%로 높게 나타났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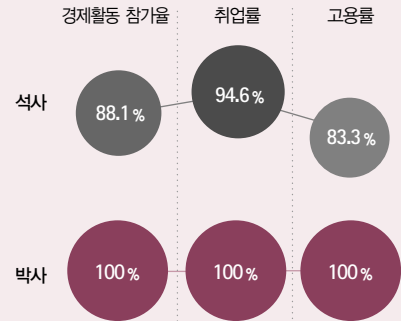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3,255**만원

박사 **4,581**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255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581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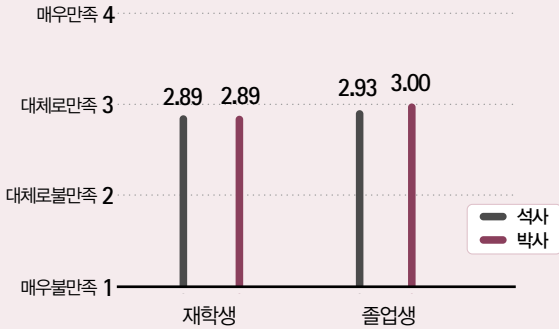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05로 다소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84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48로 다소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62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63으로 다소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8.1%로 나타났고, 취업률은 94.6%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83.3%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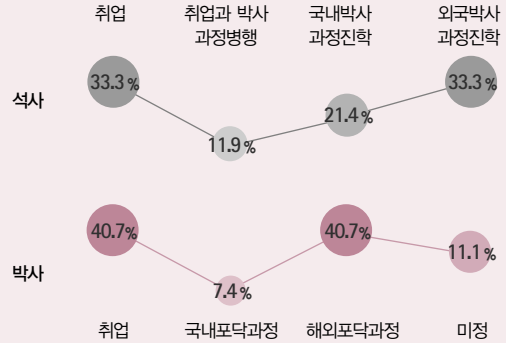
법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법학 분야의 교육목표는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법률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의 공급은 물론, 정치 법조계·행정계·정계·금융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가의 발전, 특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국제법무실무에 능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다.

2. 졸업 후 진로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학의 교수나 각종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는 사법시험을 통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계로 진출하기도 하며, 행정, 입법, 외무고시 등의 각종 국가고시를 통하여 고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도 한다. 또한 일반 기업체나 공사, 은행, 보험 등 금융 분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이 높게 나타났고, 재학생은 석사(2.89)와 박사(2.89)가 같았으며, 졸업생은 박사(3.00)가 석사(2.9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과 외국 유학이 각각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박사과정 재학생의 경우에도 취업과 외국 포닥과정정이 각각 40.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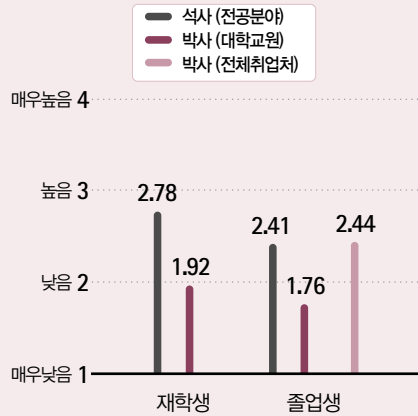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석사 **4,502**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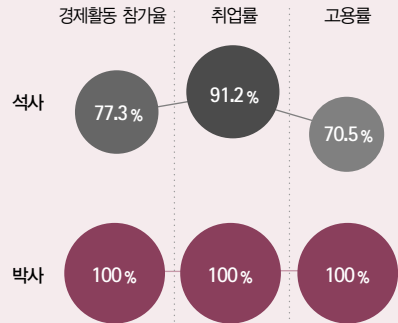
박사 **5,505** 만원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4,502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5,505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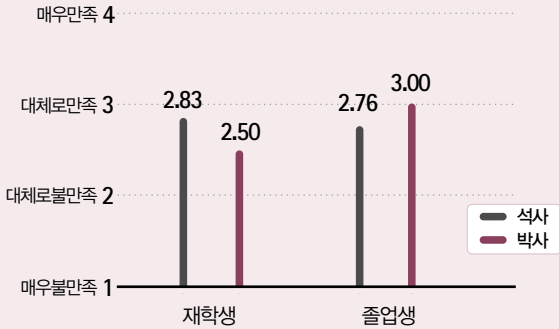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78로 다소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92로 약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41로 보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6으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44로 전망하고 있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7.3%인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률은 9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70.5%로 대학원 전체 고용률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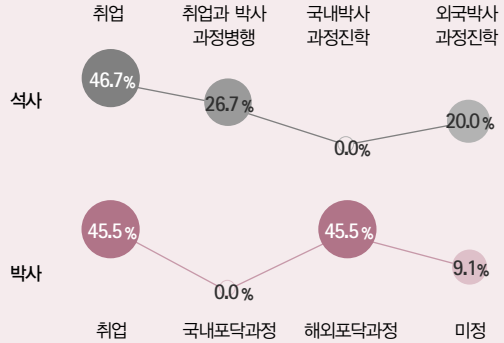
사회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사회학 분야는 현대사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이해를 추구하는 종합과학으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모든 측면을 구조와 변동의 관점에서 다룬다.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이해와 사회구조의 형성 및 변화를 총체적인 시각으로 분석, 조망하고, 인류사회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시적·미시적 능력배양에 역점을 둔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사회조사 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고도의 응용기법을 겸비한 사회조사 및 분석 전문가, 사회문제 전문가, 정보전문가, 문화전문가, 국제전문가, 사회봉사 및 시민사회 운동가 등을 양성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남아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나 주로 사회조사와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여론조사기관 등으로 진출이 많다. 또한 정부기관의 행정관료, 각 사업체의 노무관리, 금융기관, 언론기관, 광고와 PR 계통, 사회복지기관, 정보산업, 문화산업, 기획, 기업 분야,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정당 및 사회단체 분야, 언론 및 출판 분야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박사의 경우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이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은 석사(2.83)가 박사(2.5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졸업생은 박사(3.00)가 석사(2.76)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20.0%를 차지했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5.5%로 나타났고, 해외 포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45.5%로 나타났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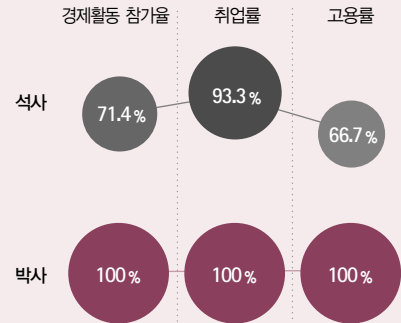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2,883** 만원

박사 **5,800** 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883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5,800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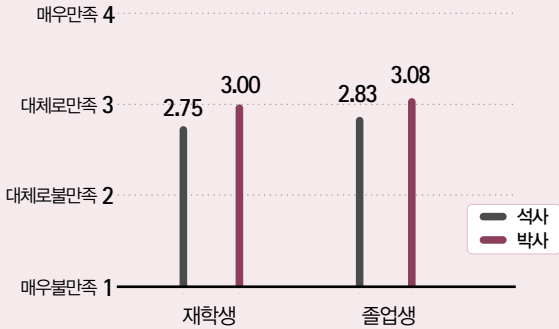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56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30으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00으로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00으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57로 인식하고 있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1.4%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9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66.7%로 평균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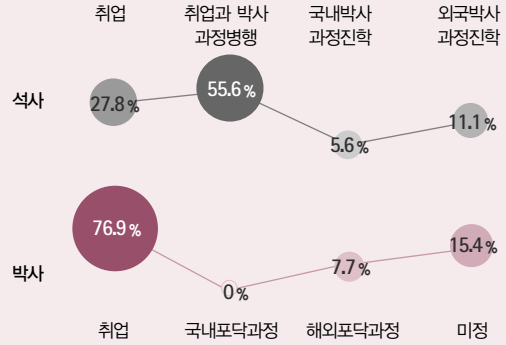
행정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행정학과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제반 현상을 이해하고, 변동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행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복지 행정의 방향을 모색하며, 지방화시대와 민주행정의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분야별 심층적 이론 연구와 실용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의 행정학 및 정책학 교수나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형사사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언론계, 금융계, 정당, 사기업, 군 등 다양한 사회 분야로 진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3.00)가 석사(2.75)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도 박사(3.08)가 석사(2.8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과 박사과정 병행이 5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은 11.1%였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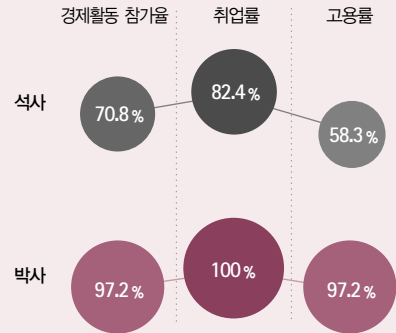
석사 **2,833** 만원

박사 **4,410** 만원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833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410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55로 다소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5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00으로 약간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69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20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0.8%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82.4%로 나타났으며, 고용률 또한 58.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7.2%였고 취업률은 100%였으며 고용률은 97.2%로 나타났다.

사회계열 Tip 정보

1) 진학동기

사회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박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9	①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9
교수가 되기 위해서	2.97	②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4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33	③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43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18	④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26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84	⑤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81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61	⑥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76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42	⑦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9
		순위

사회계열	석사 학위 취득자의 석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38	①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48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33	②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52
교수가 되기 위하여	2.14	③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11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06	④ 교수가 되기 위하여 2.09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1.96	⑤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1.95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58	⑥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66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56	⑦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6
		순위

*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그러함 4: 매우 그러함

2) 동일 전공 진학 비율

사회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전공이 석사 전공과 동일한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85.4	① 동일 전공자 87.7
타 전공자 14.6	② 타전공자 12.3
	순위

사회계열

석사 전공과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학문적 매력 45.5	① 학문적 매력 40.9
적성에 맞아서 13.6	②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22.7
기타 13.6	③ 적성에 맞아서 18.2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필요해서 13.6	④ 기타 8.2
석사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13.6	⑤ 석사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4.5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0.0	⑥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필요해서 3.6
학위취득 용이성 0.0	⑦ 학위취득 용이성 0.9
박사과정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0.0	⑧ 박사과정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0.9
	순위

사회계열

학부와 석사의 동일 전공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70.8	① 동일 전공자 81.3
타 전공자 29.2	② 타 전공자 18.7
	순위

학문적 매력 39.7	① 학문적 매력 45.4
적성에 맞아서 32.1	② 적성에 맞아서 27.7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24.4	③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21.2
학부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2.6	④ 학부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1.5
학위취득 용이성 1.3	⑤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필요해서 1.5
기타 0.0	⑥ 학위취득 용이성 1.2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필요해서 0.0	⑦ 기타 0.8
학부때 복수전공을 해서 0.0	⑧ 학부때 복수전공을 해서 0.4
대학원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0.0	⑨ 대학원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0.4

순위

교육여건이 좋아서 22.7	① 교육여건이 좋아서 22.8
기타 20.5	②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5.3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3.6	③ 교수진이 좋아서 14.3
명성이 높아서 11.4	④ 기타 11.1
거주지와 인접하여 11.4	⑤ 거주지와 인접하여 9.5
교수진이 좋아서 9.1	⑥ 명성이 높아서 5.8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6.8	⑦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4.8
입학하기가 쉬워서 4.5	⑧ 입학하기가 쉬워서 4.2
학비가 저렴해서 0.0	⑨ 학비가 저렴해서 3.7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0.0	⑩ 석사취득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3.2
직장과 인접하여 0.0	⑪ 직장과 인접하여 2.1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0.0	⑫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1.1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0.0	⑬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1.1
석사취득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0.0	⑭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1.1

순위

사회계열

동일 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72.3	① 동일 대학 진학 77.0
타 대학 진학 27.7	② 타 대학 진학 23.0

순위

사회계열

학부와 동일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64.3	① 동일 대학 진학 66.8
타 대학 진학 35.7	② 타 대학 진학 33.2

순위

사회계열

학부 대학과 다른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이유 (단위 : %)

전 체

교육여건이 좋아서 19.5	① 교육여건이 좋아서 22.4
교수진이 좋아서 16.1	②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15.1
명성이 높아서 13.8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4.8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2.6	④ 교수진이 좋아서 13.0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12.6	⑤ 명성이 높아서 12.6
학비가 저렴해서 8.0	⑥ 학비가 저렴해서 6.4
기타 4.6	⑦ 기타 4.1
거주지와 인접하여 4.6	⑧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3.2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2.3	⑨ 거주지와 인접하여 2.7
직장과 인접하여 2.3	⑩ 입학하기가 쉬워서 2.7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2.3	⑪ 직장과 인접하여 0.9
입학하기가 쉬워서 1.1	⑫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0.9
전형시기가 맞아서 0.0	⑬ 전형시기가 맞아서 0.5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0.0	⑭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0.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취득 0.0	⑮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취득 0.2

순위

3) 학비 조달 방법

사회계열	박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31.2	①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36.0
개인 저축	27.3	② 개인 저축 18.2
부모 지원	15.6	③ 장학금 14.5
장학금	10.4	④ 부모 지원 10.8
배우자 지원	3.9	⑤ RA 4.8
RA	3.2	⑥ 배우자 지원 4.2
TA	2.6	⑦ TA 3.7
대출	2.6	⑧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3.4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1.3	⑨ 대출 3.0
기타	1.3	⑩ 기타 0.6
학과·실험 조교	0.6	⑪ 프로젝트 참여 0.6
프로젝트 참여	0.0	⑫ 학과·실험 조교 0.1
		순위

사회계열	석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39.0	①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34.8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17.8	② 장학금 22.4
장학금	16.7	③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12.2
RA·TA를 통해	9.8	④ RA·TA를 통해 12.1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8.7	⑤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8.7
현재 재직 직장 지원	3.4	⑥ 은행대출 4.8
은행대출	3.0	⑦ 현재 재직 직장 지원 3.4
기타	0.8	⑧ 기타 0.9
학과 및 실험 조교	0.4	⑨ 학과 및 실험 조교 0.4
BK 지원	0.4	⑩ 프로젝트 참여 0.3
프로젝트 참여	0.0	⑪ BK 지원 0.1
		순위

4) 근무형태 및 취업기관

사회계열

박사학위자의 근무형태 (단위 : %)

전 체

풀타임 정규직(정년 보장)	56.5	① 풀타임 정규직(정년 보장)	55.5
풀타임 비정규직(정년 비보장)	20.8	② 풀타임 비정규직(정년 비보장)	20.9
파트타임직	18.2	③ 파트타임직	14.2
개인사업	2.6	④ 포스트닥	7.4
포스트닥	1.9	⑤ 개인사업	1.7
기타	0.0	⑥ 기타	0.2

순위

사회계열

박사학위자의 취업기관 (단위 : %)

전 체

4년제 대학	33.3	① 4년제 대학	30.6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2.4	②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1.3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1.8	③ 국내 대기업	7.6
기타	9.2	④ 초·중·고등학교	6.7
2년제 대학	5.2	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6.5
국내 대기업	5.2	⑥ 국내 중소기업	6.1
개인 사업(창업)	4.6	⑦ 기타	6.0
초·중·고등학교	3.9	⑧ 민간기업체 연구소	4.6
비영리 민간기구	3.9	⑨ 2년제 대학	4.4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2.6	⑩ 대학 연구소	4.0
대학 연구소	2.6	⑪ 의료 기관	4.0
민간기업체 연구소	2.6	⑫ 개인 사업(창업)	3.6
공기업·공공투자기관	1.3	⑬ 비영리 민간기구	1.5
의료 기관	0.7	⑭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4
법률 사무소	0.7	⑮ 공기업·공공투자기관	0.7
국내 중소기업	0.0	⑯ 외국계 기업	0.5
외국계 기업	0.0	⑰ 학원	0.2
학원	0.0	⑱ 법률 사무소	0.1
군대	0.0	⑲ 군대	0.1

순위

사회계열

석사학위자의 진로상황 (단위 : %)

전 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3.8	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6.2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4.1	② 박사과정 중 15.3
박사과정 중 11.5	③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1.7
구직중 5.7	④ 구직중 4.7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5.7	⑤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3.3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3.8	⑥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2.8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1.9	⑦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2.8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1.9	⑧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2.0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1.5	⑨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1.2
	순위

사회계열

석사학위자의 취업 기관 (단위 : %)

전 체

국내 중소기업 16.3	① 국내 대기업 22.3
국내 대기업 14.3	② 국내 중소기업 21.5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1.2	③ 의료기관 7.3
기타 10.2	④ 4년제 대학 7.2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9.2	⑤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6.9
의료기관 7.7	⑥ 기타 5.8
4년제 대학 6.1	⑦ 민간기업체 연구소 5.4
개인 사업(창업) 4.6	⑧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8
민간기업체 연구소 4.1	⑨ 개인 사업(창업) 4.2
외국계 기업 4.1	⑩ 외국계 기업 3.3
비영리 민간기구 3.6	⑪ 초·중·고등학교 3.2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3.1	⑫ 비영리 민간기구 1.7
초·중·고등학교 2.6	⑬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5
학원 1.0	⑭ 2년제 대학 1.3
2년제 대학 0.5	⑮ 대학 연구소 1.3
대학 연구소 0.5	⑯ 기타 1.3
법인 단체 0.5	⑰ 학원 0.9
법률 사무소 0.5	⑱ 법인 단체 0.2
기타 0.0	⑲ 법률 사무소 0.1
	순위

5) 구직시 취업정보 출처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채용회사 홈페이지	신문 광고	대학교 취업정보실	기타	계
4년제 대학	30.3	24.2	18.2	6.1	9.1		9.1	100.0
2년제 대학	42.9			14.3	14.3		28.6	100.0
초·중·고등학교	33.3						66.7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29.4	23.5	17.6	5.9	11.8		11.8	100.0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25.0	25.0	25.0		25.0	25.0		100.0
대학 연구소	25.0	25.0	25.0				25.0	100.0
민간기업체 연구소		75.0					25.0	100.0
국내 대기업	14.3	14.3	14.3	28.6	14.3	14.3	14.3	100.0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5.8	31.6	5.3	15.8	5.3		26.3	100.0
개인 사업(창업)		16.7					83.3	100.0
의료 기관		100.0						100.0
비영리 민간기구	33.3	33.3		16.7	16.7			100.0
기타	14.3	28.6			14.3		42.9	100.0
공기업·공공투자기관	50.0				50.0			100.0
법률 사무소		100.0						100.0

석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채용회사 홈페이지	신문 광고	대학교 취업정보실	기타	계
4년제 대학	12.5	50.0				25.0	12.5	100.0
2년제 대학							100.0	100.0
초·중·고등학교				66.7			33.3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26.7	46.7	20.0			6.7		100.0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50.0	50.0					100.0
대학 연구소	100.0							100.0
민간기업체 연구소	25.0		25.0	12.5		25.0	12.5	100.0
국내 대기업		13.0	60.9	8.7	4.3	8.7	4.3	100.0
국내 중소기업	15.4	30.8	34.6	7.7		3.8	7.7	100.0
외국계 기업	16.7	16.7		16.7		50.0		100.0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33.3	16.7	16.7	8.3	8.3	16.7	100.0
개인 사업(창업)	25.0	25.0	50.0					100.0
의료기관	62.5	25.0		12.5				100.0
비영리 민간기구	16.7	50.0	16.7			16.7		100.0
기타	8.3	41.7	16.7		16.7	8.3	8.3	100.0
학원		100.0						100.0

6) 향후 취업 전망

사회계열

박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전 체

국내 전체 취업처	2.38	①	국내 전체 취업처	2.44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7	②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71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59	③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1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2	④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3

순위

사회계열

석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

전 체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51	①	전공 분야로의 취업	2.74
전공 분야로의 취업	2.50	②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57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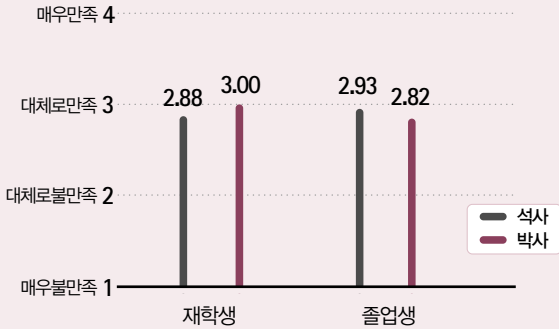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 높음

교육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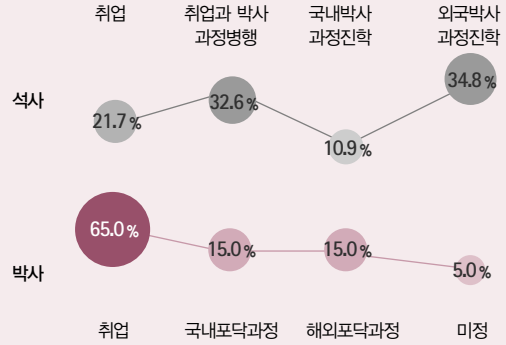
교육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게 하며, 교육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둔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학생 지도능력, 연구능력 및 행정능력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교육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처방능력을 개발한다. 교육학은 중등학교 교원 양성 및 교육학 연구, 그리고 교육의 각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의 양성과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사회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중등학교 교사 혹은 대학교수로 진출할 수 있고, 대기업체 연수원의 직업교육 전문가, 사회교육 전문가, 청소년 또는 부녀 상담요원, 사설 교육 훈련 및 입시 전문기관의 교육 전문요원, 교육 행정 전문가로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교육학의 이론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3.00)가 석사(2.88)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석사(2.93)가 박사(2.82)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외국 박사 진학이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취업과 박사과정 병행이 32.6%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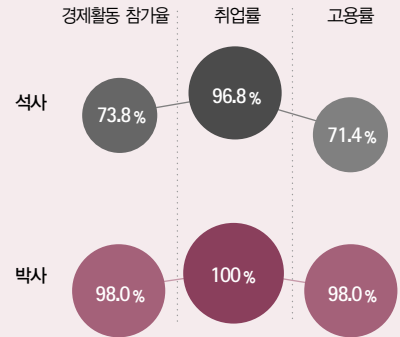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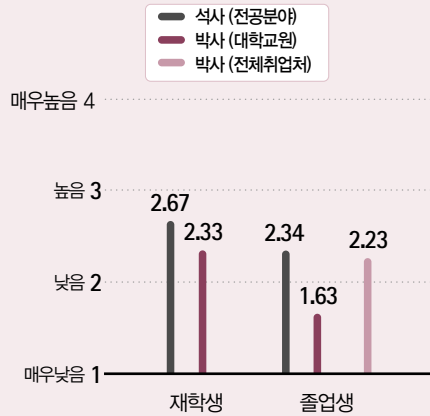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2,933** 만원

박사 **4,111** 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933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111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67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2.33으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34로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63으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23으로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3.8%로 나타났고, 취업률은 96.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71.4%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8.0%로 나타났고 취업률은 100%였으며 고용률은 98.0%로 나타났다.

교육계열 Tip 정보

1) 진학동기

교육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박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67	①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9
교수가 되기 위해서	2.53	②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4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23	③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43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17	④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26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90	⑤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81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79	⑥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76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3	⑦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8
		순위

교육계열	석사 학위 취득자의 석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67	①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48
교수가 되기 위하여	2.50	②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52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08	③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11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08	④ 교수가 되기 위하여 2.09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1.78	⑤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1.95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74	⑥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66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3	⑦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6
		순위

*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그러함 4: 매우 그러함

2) 동일 전공 진학 비율

교육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전공이 석사 전공과 동일한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72.9	① 동일 전공자 87.6
타 전공자 27.1	② 타전공자 12.4
	순위

교육계열

석사 전공과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학문적 매력 30.8	① 학문적 매력 40.9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30.8	②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22.7
적성에 맞아서 23.1	③ 적성에 맞아서 18.2
현재 하고 있는 일 · 직장에 필요해서 7.7	④ 기타 14.6
기타 7.7	⑤ 현재 하고 있는 일 · 직장에 필요해서 3.6
	순위

교육계열

학부와 석사의 동일 전공자 비율 (단위 : %)

전 체

타 전공자 52.4	① 동일 전공자 81.3
동일 전공자 47.6	② 타전공자 18.7
	순위

교육계열

학부전공과 다른 전공의 석사과정 진학 이유 (단위 : %)

전 체

학문적 매력 71.4	① 학문적 매력 45.4
적성에 맞아서 23.8	② 적성에 맞아서 27.7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4.8	③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21.2
기타 0.0	④ 기타 5.7
	순위

교육계열

동일 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59.2	① 동일 대학 진학 77.1
타 대학 진학 40.8	② 타 대학 진학 22.9
	순위

교육계열

석사와 다른 대학의 박사과정 진학 이유 (단위 : %)

전 체

교육여건이 좋아서 33.3	① 기타 23.3
명성이 높아서 14.3	② 교육여건이 좋아서 22.8
입학하기가 쉬워서 14.3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5.3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9.5	④ 교수진이 좋아서 14.3
거주지와 인접하여 9.5	⑤ 거주지와 인접하여 9.5
기타 9.5	⑥ 명성이 높아서 5.8
교수진이 좋아서 4.8	⑦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4.8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4.8	⑧ 입학하기가 쉬워서 4.2
	순위

교육계열

학부와 동일한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52.6	① 동일 대학 진학 66.8
타 대학 진학 47.4	② 타 대학 진학 33.2
	순위

교육계열

학부 대학과 다른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이유 (단위 : %)

전 체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33.3	① 기타 47.1
교육여건이 좋아서 27.8	② 교육여건이 좋아서 22.4
교수진이 좋아서 22.2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4.8
기타 11.1	④ 교수진이 좋아서 13.0
입학하기가 쉬워서 5.6	⑤ 입학하기가 쉬워서 2.7
	순위

3) 학비 조달 방법

교육계열	박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54.2	①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36.1
개인 저축	20.8	② 개인 저축 18.2
장학금	8.3	③ 장학금 14.3
부모 지원	8.3	④ 부모 지원 10.9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4.2	⑤ 기타 9.1
TA	2.1	⑥ 배우자 지원 4.2
배우자 지원	2.1	⑦ TA 3.7
기타	0.0	⑧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3.5
		순위

교육계열	석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28.6	①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34.8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16.7	② 장학금 22.4
RA·TA를 통해	14.3	③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12.2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14.3	④ RA·TA를 통해 12.1
장학금	11.9	⑤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8.7
현재 재직 직장 지원	9.5	⑥ 은행대출 4.8
은행대출	4.8	⑦ 현재 재직 직장 지원 3.4
기타	0.0	⑧ 기타 1.6
		순위

4) 근무형태 및 취업기관

교육계열

박사학위자의 근무형태 (단위 : %)

전 체

풀타임 정규직 (정년 보장)	61.7	① 풀타임 정규직 (정년 보장)	55.4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23.4	②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21.0
파트타임직	14.9	③ 파트타임직	14.3
기타	0.0	④ 기타	9.3

순위

교육계열

박사학위자의 취업기관 (단위 : %)

전 체

초·중·고등학교	37.5	① 4년제 대학	30.7
4년제 대학	25.0	② 기타	26.3
2년제 대학	10.4	③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1.4
기타	8.3	④ 초·중·고등학교	6.7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6.3	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6.5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2	⑥ 민간기업체 연구소	4.6
대학 연구소	2.1	⑦ 2년제 대학	4.4
민간기업체 연구소	2.1	⑧ 대학 연구소	4.0
의료 기관	2.1	⑨ 의료 기관	3.9
비영리 민간기구	2.1	⑩ 비영리 민간기구	1.5

순위

교육계열

석사학위자의 진로상황 (단위 : %)

전 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35.7	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6.2
박사과정 중	19.0	② 박사과정 중	15.3
플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9.5	③ 플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1.7
플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9.5	④ 구직 중	4.7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9.5	⑤ 플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3.3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7.1	⑥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2.8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7.1	⑦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2.8
구직 중	2.4	⑧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2.0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0.0	⑨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1.2

순위

교육계열

석사학위자의 취업 기관 (단위 : %)

전 체

초·중·고등학교	27.6	① 기타	49.4
4년제 대학	24.1	② 국내 대기업	22.3
대학 연구소	10.3	③ 4년제 대학	7.2
학원	10.3	④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6.9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6.9	⑤ 개인 사업(창업)	4.2
국내 대기업	6.9	⑥ 외국계 기업	3.3
2년제 대학	3.4	⑦ 초·중·고등학교	3.2
외국계 기업	3.4	⑧ 대학 연구소	1.3
개인 사업(창업)	3.4	⑨ 2년제 대학	1.3
기타	3.4	⑩ 학원	0.9

순위

5) 구직시 취업정보 출처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신문광고	기타	계
4년제 대학	33.3		33.3	33.3	100.0
2년제 대학	100.0				100.0
초·중·고등학교	100.0				100.0
대학 연구소		100.0			100.0
기타		33.3		66.7	100.0

석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채용회사의 JOB FAIR	채용회사 홈페이지	기타	계
4년제 대학				66.7	33.3	100.0
초·중·고등학교					100.0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00.0				100.0
대학 연구소	33.3	33.3		33.3		100.0
국내 대기업	50.0		50.0			100.0
기타					100.0	100.0

6) 향후 취업 전망

교육계열

박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전 체

국내 전체 취업처	2.23	①	국내 전체 취업처	2.44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3	②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71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56	③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1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0	④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3

순위

교육계열

석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

전 체

전공 분야로의 취업	2.34	①	전공 분야로의 취업	2.74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33	②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57

순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 높음

공학계열



건축·설비공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컴퓨터·정보통신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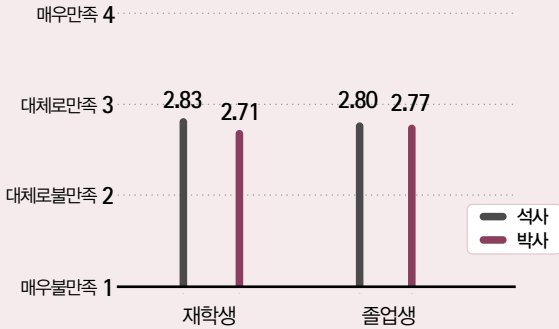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화학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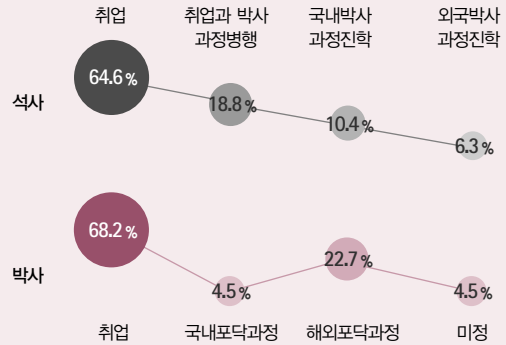
건축 · 설비공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건축 · 설비공학 분야는 건축공간에서 인간의 생활을 쾌적한 상태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을 창출해냄으로써 인간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조정, 처리하여 최상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설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축물 시설이 대규모화, 다양화, 자동화가 진행되고, 그에 대응하여 건축설비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빌딩 자동화, 사무 자동화에 따른 지능형 빌딩 및 전자산업의 급성장에 의한 반도체 생산공정, Biotechnology 관련 시설 등 고도의 청정조건을 요구하는 클린룸 설비 등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 졸업 후 진로

설비 엔지니어로서 활동영역이 넓고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된 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문기술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망이 매우 밝다. 건축설비 및 산업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 관련 회사의 엔지니어, 건설회사 설계실, 전문 건설업체, 용역 및 컨설팅 회사, 공무원, 연구소, 기술원, 세일즈 엔지니어, 감리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83)가 박사(2.7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도 석사(2.80)가 박사(2.77)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계획은 6.3%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8.2%를 차지했고, 해외 포닥은 22.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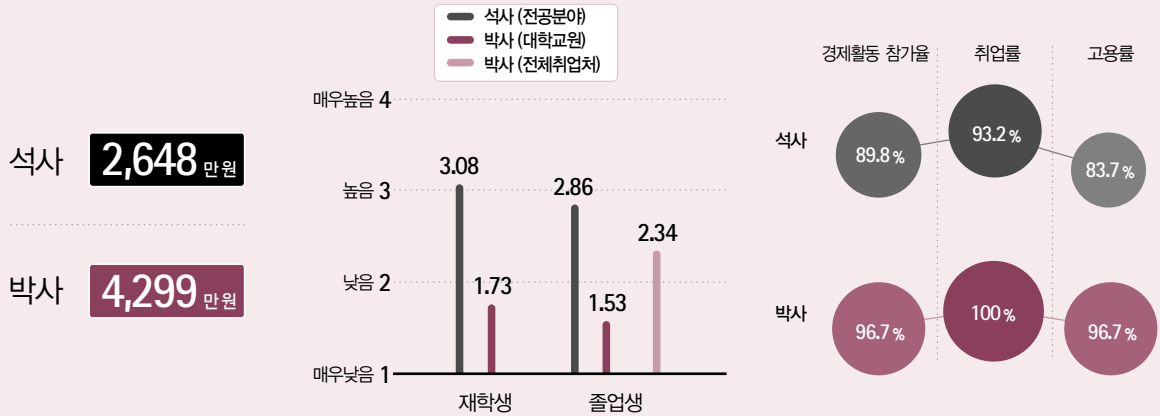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648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299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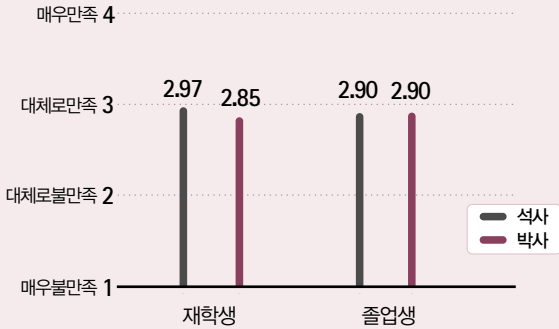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08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3으로 다른 전공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86으로 취업전망을 밝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3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34로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9.8%로 높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93.2%, 고용률은 83.7%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6.7%로 나타났고, 취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100.0%와 9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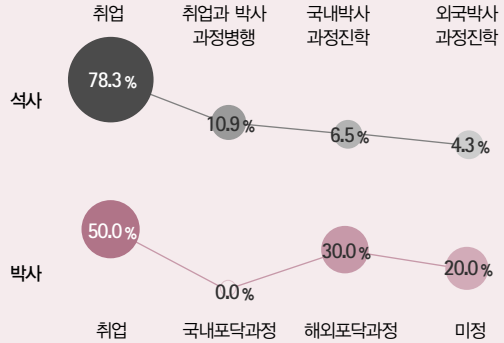
토목공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토목공학 분야는 국가 및 사회의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문으로, 국민의 사회, 경제, 문화, 복지 생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교량, 고속철도, 터널 등의 수송 및 유통 시스템, 지형 정보, 원격 탐사 등의 정보 시스템,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 및 해상 구조물 등의 에너지 개발 시스템 등을 계획, 설계, 시공,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동적 사고와 풍부한 전문지식을 지닌 현장 전문 기술자,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실한 탐구력, 그리고 미래 지향적 기반지식을 갖춘 전문 연구인, 사회정의를 위해 봉사하고 탁월한 판단 및 기획력을 지닌 건설경영인을 양성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후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 국가정책을 맡는 정부기관, 관공소, 여러 토목구조물을 설계하는 용역 분야, 계획설계를 준수하여 최종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시공 분야로 진출한다. 이외에도 재료를 포함한 구조역학, 수리학, 수문학, 측량학, 콘크리트 공학, 토질역학을 포함한 지반공학 등의 기초적인 분야가 있으며,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교량공학, 터널공학, 댐공학 등의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철도공학, 도로공학, 항만공학, 하천공학, 발전수력, 상하수도공학, 해안공학 및 환경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과 계획, 설계, 운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97)가 박사(2.85) 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석사(2.90)와 박사(2.90)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7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4.3%로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 포닥이 30.0%를 차지했다.

연봉

[졸업생]

석사 **2,915**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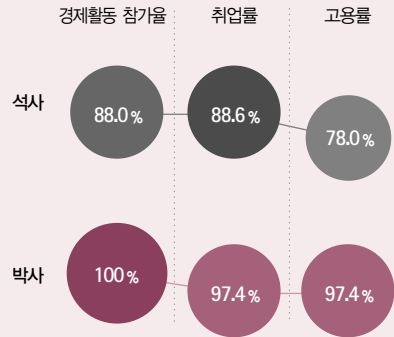
박사 **5,005** 만원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915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5,005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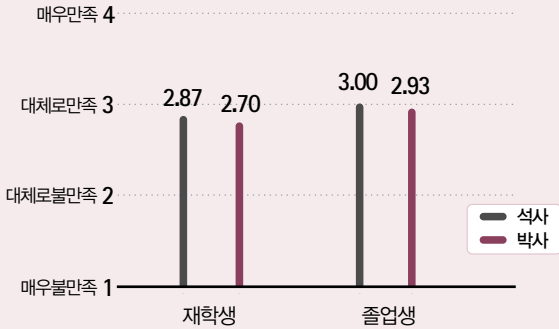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10으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0으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98로 취업전망을 밝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1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47로 인식하고 있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8.0%로 약간 높게 나타났고, 취업률은 88.6%, 고용률은 78.0%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100.0%로 나타났고, 취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97.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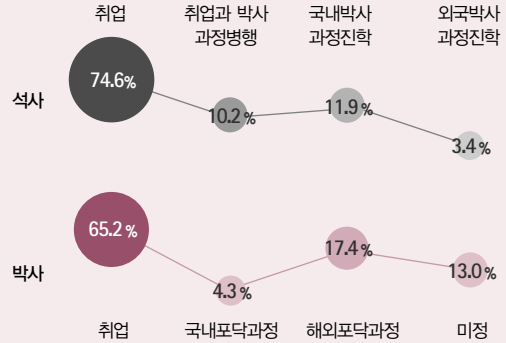
기계공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기계공학 분야는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각종 산업 기계 및 관련 장치 설비의 설계, 제작, 이용, 관리와 나노, 지식 정보 및 신에너지 기술 등에 대한 이론 및 응용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계에 대한 폭넓은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전공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학술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연구 수행자로서의 자질을 기르며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연구능력과 사고력을 배양함으로써 산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과 전문인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후 정부연구소와 민간기업체 부설연구소에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자동차, 항공기, 병기, 첨단산업에 필요한 신소재 개발 및 성능 개선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신소재 공업 분야, 중공업 분야의 현장과 연구소에 진출할 수도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87)가 박사(2.70)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 또한 석사(3.00)가 박사(2.93)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7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3.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5.2%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17.4%를 나타냈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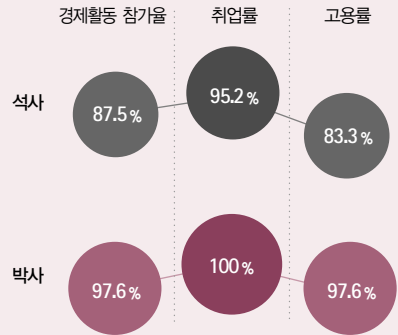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3,248** 만원

박사 **4,815** 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248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815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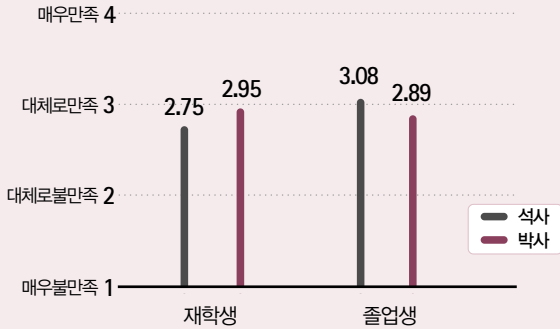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01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66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3.29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40으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74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7.5%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95.2%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83.3%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7.6%였고, 취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100.0%와 97.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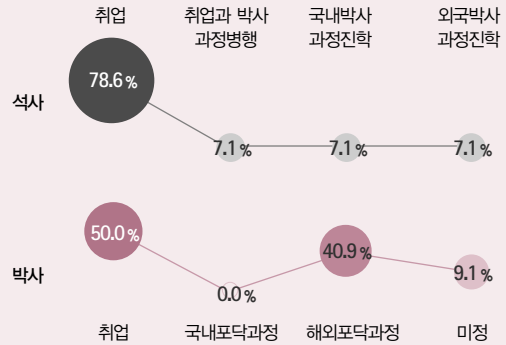
전기공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전기공학과는 교육목표는 고도 산업기술 사회에서 필요한 전기기기 및 전력전자, 전력계통, 로봇틱스 및 자동화,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전문적 이론 및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능력을 개발·향상시키며 학술연구를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2. 졸업 후 진로

전기 관련 연구소, 정부기관, 엔지니어링회사, 전기기계 제작회사, 전력회사, 건설회사, 선박회사, 공정제어가 복잡한 제철, 섬유, 전자계산기 제작회사 등에 진출한다. 또한 발전설비 및 산업 플랜트 분야나 첨단 연구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2.95)가 석사(2.75)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석사(3.08)가 박사(2.8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7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7.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50.0%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40.9%를 나타냈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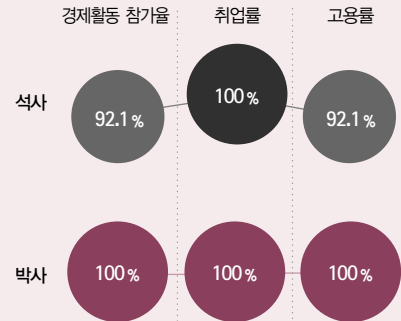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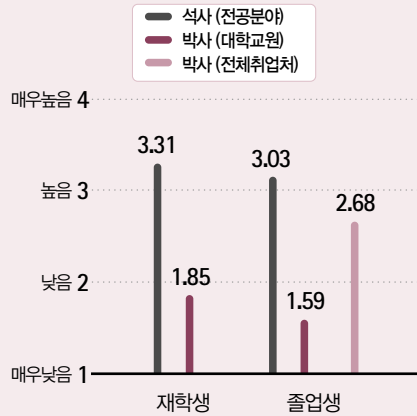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3,264** 만원

박사 **5,407** 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264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5,40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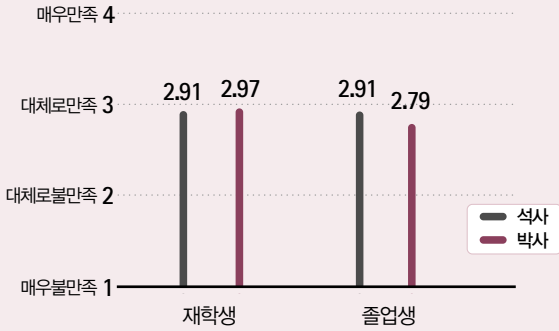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31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85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3.03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9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68로 높은 취업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2.1%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100.0%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92.1%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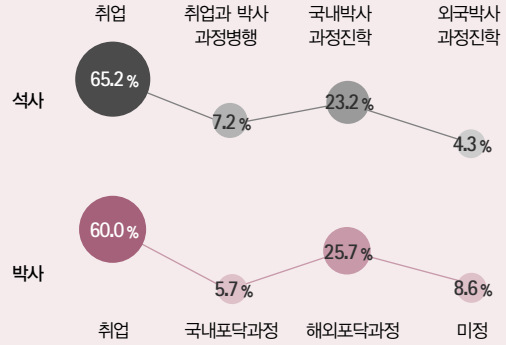
전자공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과 전문 영역별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산·학·연 협동이 직결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공학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과 창의적인 응용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고급기술인과 교육자 및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후 민간 및 산업용 전자 관련 제품의 생산 분야, 음향기기, 화상기기, 유·무선 통신장비, 각종 계측기, 컴퓨터 등의 제조업체나 반도체, 첨단의료장비, 고성능기계류, 자동화 계통 등의 제조 및 운영업체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2.97)가 석사(2.9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석사(2.91)가 박사(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계획은 4.3%만이 가지고 있었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0.0%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25.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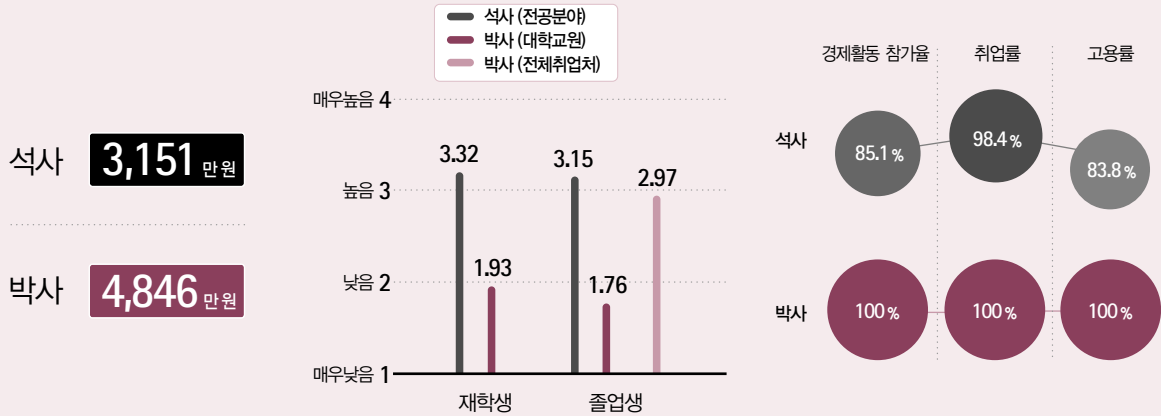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151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846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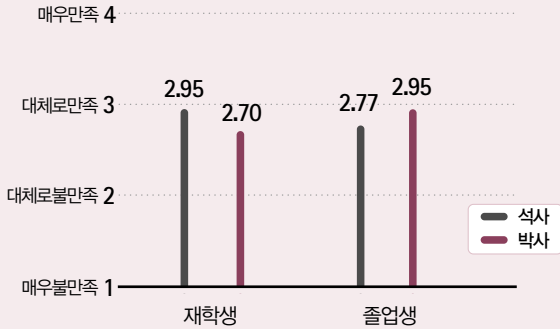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32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93으로 약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3.15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6으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97로 취업전망을 밝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5.1%로 나타났고, 취업률은 98.4%였으며, 고용률은 83.8%였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은 모두 10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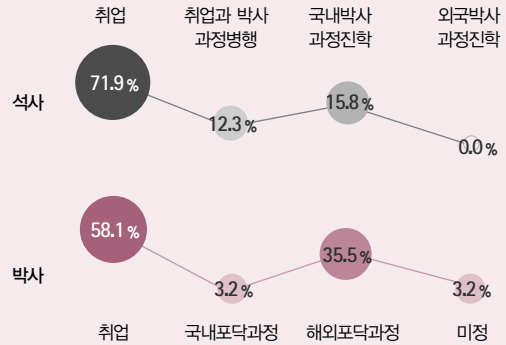
전산학 · 컴퓨터공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신지식 및 컴퓨터 관련 기본지식을 두루 갖춘 컴퓨터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며, 특화된 분야별 이론과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현장감 있는 전문인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고급 컴퓨터 전문가를 기르는 데 역점을 둔다. 주로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과학자 양성, 컴퓨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공학자 양성과 더불어 컴퓨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와주는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졸업 후 진로

졸업 후에는 교수, 연구원, 정보기관 및 각 기업체 전산실, 금융기관,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웹마스터, 네트워크 엔지니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자, 시스템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사 및 운영자, 정보검색사, 전산자문기관, 국가 특정 요직, 벤처 창업 등이 가능하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95)가 박사(2.70)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박사(2.95)가 석사(2.77)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7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없었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58.1%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35.5%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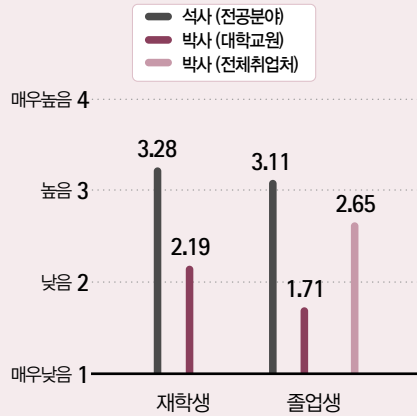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석사 **3,195**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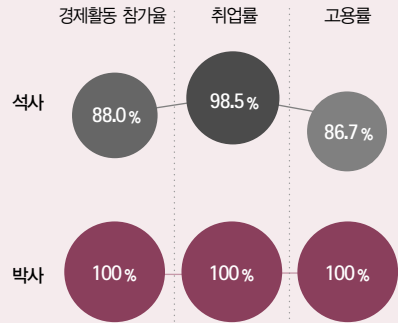
박사 **4,775** 만원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195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77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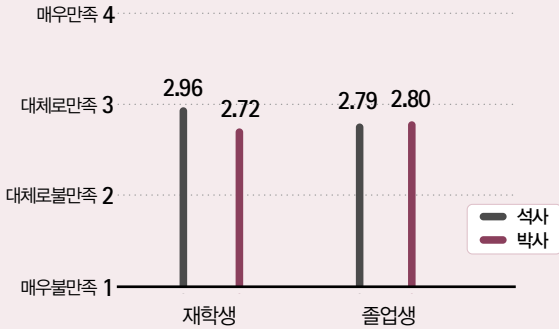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28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2.19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3.11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1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65로 나타났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8.0%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98.5%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86.7%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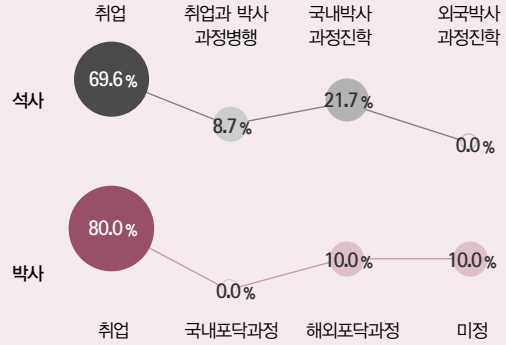
정보 · 통신공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및 연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기반 이론 학습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IT 관련 첨단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며, 특히 공학지식을 이해, 분석, 종합하고 이를 설계하거나 제품생산에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실무형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졸업 후 진로

졸업 후에는 국내 유수 통신회사 연구소(SK텔레콤, 한국통신, LG텔레콤, 데이콤 등), 외국 IT 회사 연구소(AT&T,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방송사 및 신문사, 법률회사, 컨설팅회사, 특허 사무소, 정부출연 연구소(전자통신연구소, KIST)등에 진출한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96)가 박사(2.72)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박사(2.80)가 석사(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없었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80.0%를 차지했고, 외국박사로의 유학은 10.0%를 나타냈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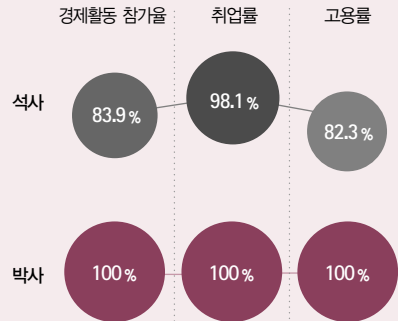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3,117** 만원

박사 **4,825** 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117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82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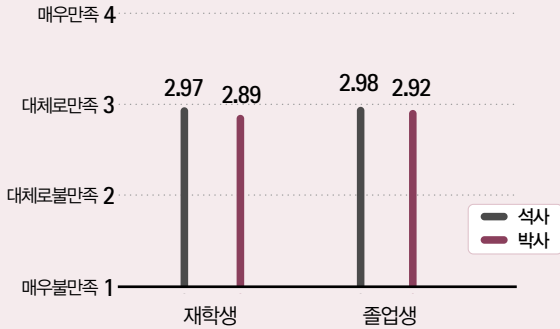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36으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2.16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3.15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80으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90으로 높은 취업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3.9%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98.1%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82.3%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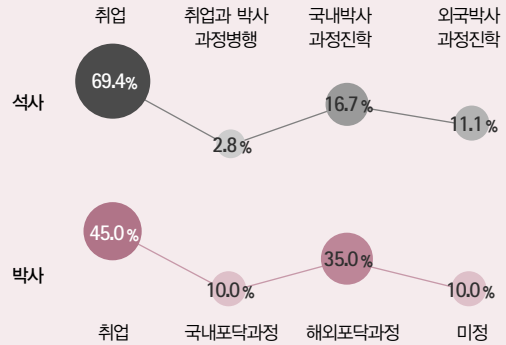
화학공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화학공학은 천연자원으로부터 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만드는 화학공정의 개발, 설계, 운전,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재래적인 분야와 최근의 기술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대체에너지, 환경오염 및 생체공학과 관련된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고분자 및 반도체소재공학, 유전공학 등을 다루는 종합학문이다. 따라서 화학공학은 에너지공학, 촉매공학, 공정시스템공학, 분체공학, 생물화학공학 및 화공나노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의 전문성을 기르고, 이와 동시에 실무적인 연구능력과 현장감각을 배양하여 화학공학의 발전에 기여할 고급 연구인력 및 기술자를 양성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화학·화공 관련 연구소나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정유회사, 석유화학회사, 섬유회사,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식음료회사 등)와 엔지니어링 분야(공장설계, 건설, 관리), 환경 관련 분야, 반도체 분야, 무역 관련 분야, 화공직 공무원, 화공 관련 변리사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97)가 박사(2.89)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도 석사(2.98)가 박사(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1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5.0%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35.0%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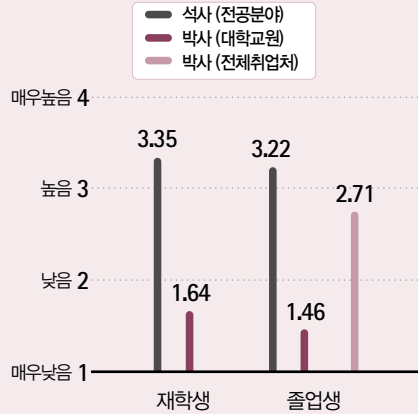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석사 **2,922**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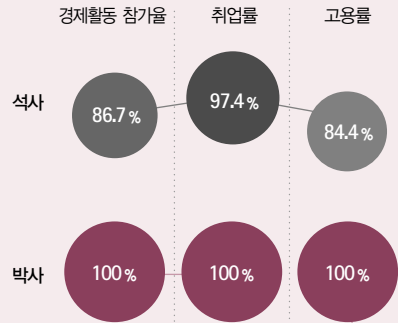
박사 **4,339** 만원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922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339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취업전망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35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64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3.22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46으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71로 높은 취업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6.7%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97.4%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84.4%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공학계열 Tip 정보

1) 진학동기

공학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박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8	①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9
교수가 되기 위해서	2.62	②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4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62	③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4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32	④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26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80	⑤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81
당시 직장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73	⑥ 당시 직장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76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3	⑦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8

순위

공학계열

석사 학위 취득자의 석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49	①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48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65	②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52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32	③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11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1.97	④ 교수가 되기 위하여	2.09
교수가 되기 위하여	1.86	⑤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1.95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75	⑥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6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65	⑦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66

순위

*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그러함 4: 매우 그러함

2) 동일 전공 진학 비율

공학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전공이 석사 전공과 동일한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90.4	① 동일 전공자 87.6
타 전공자 9.6	② 타전공자 12.4
	순위

공학계열

석사 전공과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학문적 매력 34.5	① 학문적 매력 40.9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27.6	②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22.7
적성에 맞아서 20.7	③ 적성에 맞아서 18.2
현재 하고 있는 일 · 직장에 필요해서 6.9	④ 기타 9.1
석사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3.4	⑤ 석사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4.5
박사과정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3.4	⑥ 현재 하고 있는 일 · 직장에 필요해서 3.6
기타 3.4	⑦ 박사과정부터 개설되는 전공이어서 0.9
	순위

공학계열

학부와 석사의 동일 전공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88.2	① 동일 전공자 81.3
타 전공자 11.8	② 타 전공자 18.7
	순위

학문적 매력	38.2	①	학문적 매력	45.4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29.1	②	적성에 맞아서	27.7
적성에 맞아서	27.3	③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21.2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필요해서	5.5	④	기타	4.2
기타	0.0	⑤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필요해서	1.5
순위				

교육여건이 좋아서	21.3	①	교육여건이 좋아서	22.8
교수진이 좋아서	17.0	②	기타	15.3
거주지와 인접하여	10.6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5.3
기타	10.6	④	교수진이 좋아서	14.3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8.5	⑤	거주지와 인접하여	9.5
학비가 저렴해서	8.5	⑥	명성이 높아서	5.8
직장과 인접하여	6.4	⑦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4.8
명성이 높아서	4.3	⑧	입학하기가 쉬워서	4.2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4.3	⑨	학비가 저렴해서	3.7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4.3	⑩	직장과 인접하여	2.1
입학하기가 쉬워서	2.1	⑪	직장과 대학간 학연산과정	1.1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2.1	⑫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1.1
순위				

공학계열

동일 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82.8	① 동일 대학 진학 77.1
타 대학 진학 17.2	② 타 대학 진학 22.9
	순위

공학계열

학부와 동일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69.8	① 동일 대학 진학 66.8
타 대학 진학 30.2	② 타 대학 진학 33.2
	순위

공학계열

학부 대학과 다른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이유 (단위 : %)

전 체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22.1	① 교육여건이 좋아서 22.4
교육여건이 좋아서 20.6	②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15.1
명성이 높아서 15.4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4.8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2.5	④ 교수진이 좋아서 13.0
교수진이 좋아서 9.6	⑤ 명성이 높아서 12.6
학비가 저렴해서 8.1	⑥ 기타 12.5
기타 8.1	⑦ 학비가 저렴해서 6.4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3.7	⑧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3.2
	순위

3) 학비 조달 방법

공학계열

박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취업 ·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38.2	①	취업 ·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36.1
개인 저축	14.7	②	개인 저축	18.2
장학금	14.3	③	장학금	14.3
부모 지원	9.6	④	부모 지원	10.9
RA	8.8	⑤	RA	4.8
TA	3.7	⑥	배우자 지원	4.2
대출	3.7	⑦	TA	3.7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3.3	⑧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3.5
배우자 지원	2.2	⑨	대출	3.0
프로젝트 참여	1.1	⑩	기타	0.7
기타	0.4	⑪	프로젝트 참여	0.6
			순위	

공학계열

석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가족(부모 · 형제 · 배우자 등)의 지원	38.5	①	가족(부모 · 형제 · 배우자 등)의 지원	34.8
장학금	23.7	②	장학금	22.4
RA · TA를 통해	12.3	③	아르바이트 · 취업을 통해서	12.2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8.2	④	RA · TA를 통해	12.1
은행대출	7.1	⑤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8.7
아르바이트 · 취업을 통해서	5.4	⑥	은행대출	4.8
현재 재직 직장 지원	3.9	⑦	현재 재직 직장 지원	3.4
프로젝트 참여	0.4	⑧	기타	0.9
기타	0.4	⑨	학과 및 실험 조교	0.4
학과 및 실험 조교	0.2	⑩	프로젝트 참여	0.3
			순위	

4) 근무형태 및 취업기관

공학계열

박사학위자의 근무형태 (단위 : %)

전 체

풀타임 정규직 (정년 보장) 66.4	① 풀타임 정규직 (정년 보장) 55.4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22.3	②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21.0
파트타임직 5.3	③ 파트타임직 14.3
포스트닥 4.2	④ 포스트닥 7.4
개인사업 1.9	⑤ 개인사업 1.8
기타 0.0	⑥ 기타 0.3
	순위

공학계열

박사학위자의 취업기관 (단위 : %)

전 체

4년제 대학 23.5	① 4년제 대학 30.7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5.7	②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1.4
국내 대기업 14.2	③ 국내 대기업 7.6
국내 중소기업 10.8	④ 초·중·고등학교 6.7
민간기업체 연구소 7.8	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6.5
2년제 대학 5.2	⑥ 기타 6.3
개인 사업(창업) 4.9	⑦ 국내 중소기업 6.0
기타 4.9	⑧ 민간기업체 연구소 4.6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5	⑨ 2년제 대학 4.4
대학 연구소 2.2	⑩ 대학 연구소 4.0
초·중·고등학교 1.1	⑪ 의료 기관 3.9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1	⑫ 개인 사업(창업) 3.6
외국계 기업 1.1	⑬ 비영리 민간기구 1.5
비영리 민간기구 1.1	⑭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4
공기업·공공투자기관 1.1	⑮ 공기업·공공투자기관 0.7
의료 기관 0.4	⑯ 외국계 기업 0.5
학원 0.4	⑰ 학원 0.2
	순위

공학계열

석사학위자의 진로상황 (단위 : %)

전 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75.4	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6.2
박사과정 중	10.7	② 박사과정 중	15.3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7.0	③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1.7
구직 중	3.3	④ 구직 중	4.7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1.7	⑤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3.3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0.9	⑥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2.8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0.7	⑦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2.8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0.2	⑧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2.0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0.2	⑨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1.2

순위

공학계열

석사학위자의 취업 기관 (단위 : %)

전 체

국내 대기업	38.6	① 국내 대기업	22.3
국내 중소기업	30.2	② 국내 중소기업	21.5
민간기업체 연구소	6.9	③ 기타	10.8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4.9	④ 의료기관	7.3
외국계 기업	3.8	⑤ 4년제 대학	7.2
4년제 대학	3.1	⑥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6.9
기타	2.8	⑦ 민간기업체 연구소	5.4
개인 사업(창업)	2.0	⑧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8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8	⑨ 개인 사업(창업)	4.2
공기업·공공투자기관	1.5	⑩ 외국계 기업	3.3
2년제 대학	1.3	⑪ 비영리 민간기구	1.7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3	⑫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5
비영리 민간기구	0.5	⑬ 2년제 대학	1.3
벤처 기업	0.5	⑭ 학원	0.9
의료기관	0.3	⑮ 공기업·공공투자기관	0.6
학원	0.3	⑯ 벤처 기업	0.2
은행	0.3	⑰ 은행	0.1

순위

5) 구직시 취업정보 출처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채용회사 홈페이지	신문광고	기타	계
4년제 대학	15.4	23.1	23.1			38.5	100.0
2년제 대학	50.0	50.0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00.0				100.0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00.0		100.0
대학 연구소			100.0				100.0
국내 대기업			66.7	33.3			100.0
국내 중소기업			100.0				100.0
개인 사업(창업)		50.0		50.0			100.0
의료 기관			100.0				100.0
기타						100.0	100.0
학원		100.0					100.0
공기업·공공투자기관			100.0				100.0

석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헤드 헌터	채용회사의 JOB FAIR	채용회사 홈페이지	대학교 취업정보실	기타	계
4년제 대학	37.5	12.5	37.5				12.5		100.0
2년제 대학		100.0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25.0	16.7	41.7		8.3		8.3		100.0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25.0	50.0	25.0						100.0
민간기업체 연구소	8.3	16.7	33.3	4.2	12.5	12.5	4.2	8.3	100.0
국내 대기업	8.3	15.2	20.5		14.4	16.7	16.7	8.3	100.0
국내 중소기업	26.9	29.0	29.0	4.3	2.2	3.2	2.2	3.2	100.0
외국계 기업	21.4	21.4	21.4	7.1	7.1	14.3		7.1	100.0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57.1			14.3		28.6	100.0
개인 사업(창업)	33.3	33.3	33.3						100.0
비영리 민간기구	50.0		50.0						100.0
기타		33.3	50.0		16.7				100.0
공기업·공공투자기관			100.0						100.0
벤처 기업			100.0						100.0

6) 향후 취업 전망

공학계열

박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전 체

국내 전체 취업처	2.69	①	국내 전체 취업처	2.44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89	②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71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0	③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1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1	④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3

순위

공학계열

석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

전 체

전공 분야로의 취업	3.11	①	전공 분야로의 취업	2.74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78	②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57

순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 높음

자연계열



생물과학 (생물학, 생명공학)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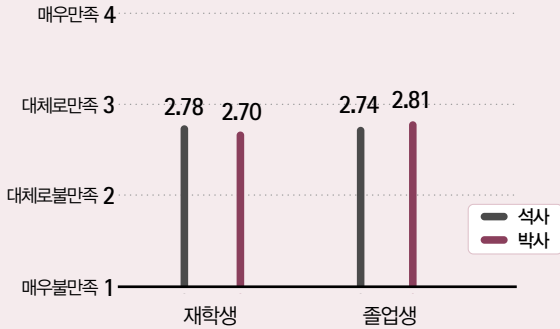
환경학

수학

물리 ·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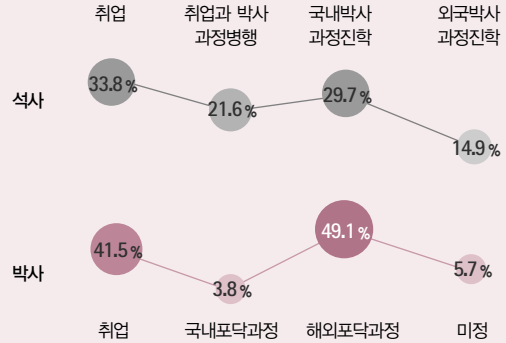
생물과학(생물학, 생명공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생물학과에서는 순수과학으로서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생물의 구조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을 대상으로 세포학, 형태학, 분류학, 유전학, 생리학, 생태학 등의 최근의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를 통하여 특정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생물학 연구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훈련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으로서의 미래 한국 생명과학 분야에서 전문인으로서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과학 활동에 참여할 능력을 가진 인력을 훈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축적되고 있는 기본지식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습득하며, 이를 창조적으로 응용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고 있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후 대학교원과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관 및 연구소(생명과학연구소, 기업체 유전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병원, 기업체, 벤처기업 등 생명과학 분야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제약 관련 회사, 병원, 국립한경원, 농촌진흥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78)가 박사(2.70)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박사(2.81)가 석사(2.74)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14.9%로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1.5%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49.1%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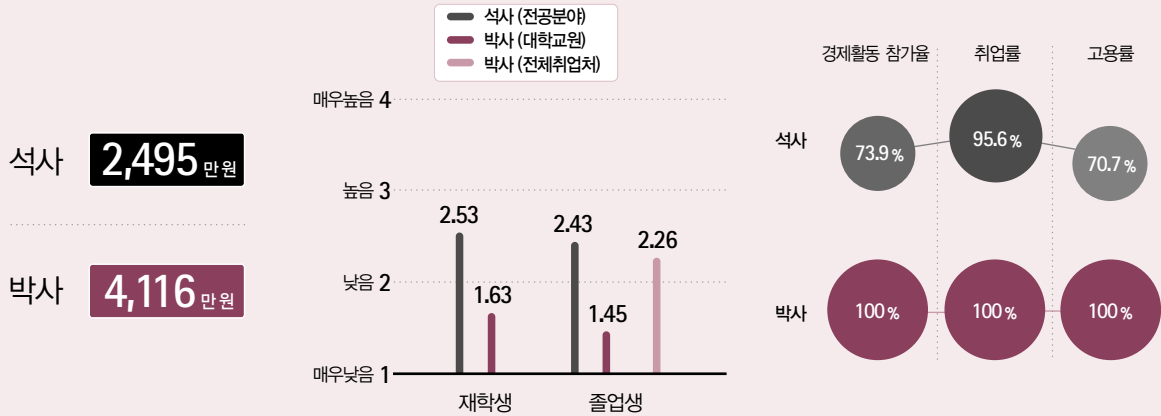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495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116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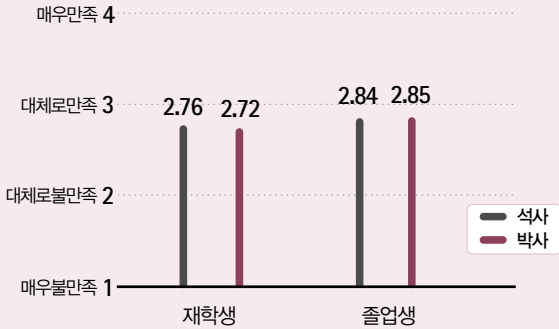
● 취업전망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53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63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43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45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26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취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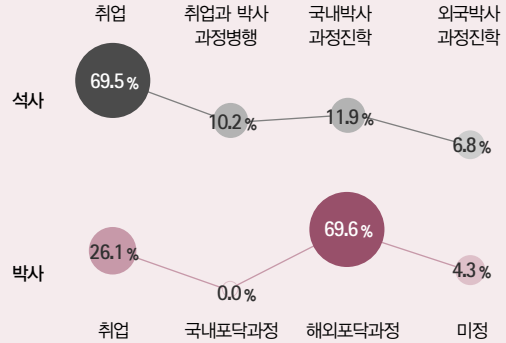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3.9%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95.6%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70.7%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화학 분야는 자연과학의 기초학문으로서 연구하는 영역과 화학의 기본이론을 산업분야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응용화학 분야가 있다. 즉,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등의 기초과목으로부터 재료화학, 정밀석유화학, 고분자화학, 생물화학, 환경화학, 공업화학 등 응용화학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전공지식을 습득하고, 농학, 의학, 공학, 생명과학 등의 관련 분야의 교육과 학문연구에 있어서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갖는 잠재력 있는 화학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국제 감각과 창조력을 갖춘 미래의 산업인력으로 경쟁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화학 관련 산업체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후 대학교와 첨단화학 분야의 연구소에서 계속적인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화학과 관련된 기업체, 제약회사, 식품회사, 신소재 관련 회사, 생활용품 회사, 석유제품 관련 회사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76)가 박사(2.72)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석사(2.84)와 박사(2.85)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6.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26.1%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4.3%를 나타냈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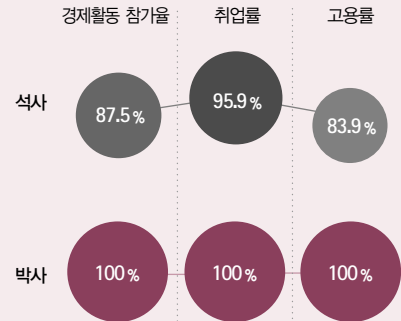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2,616** 만원

박사 **3,652** 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616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3,65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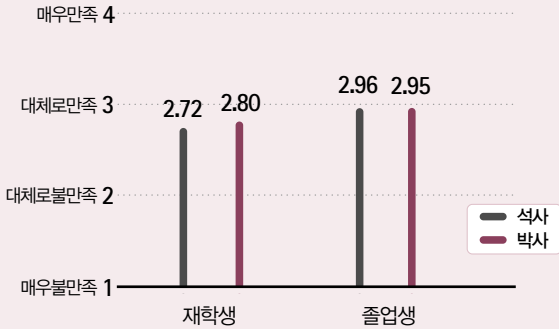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03으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4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3.02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48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55로 다소 높은 취업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7.5%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95.9%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83.9%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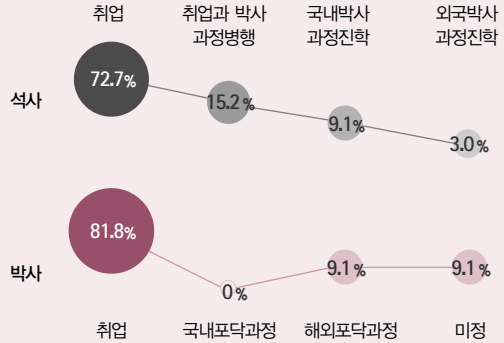
환경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환경학은 21세기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자연과 생명과 기술이 공존하는 이코테크노피아(Ecotechnopia)를 건설하기 위하여 태어난 새로운 학문이다. 자연을 구성하는 물, 대기, 토양과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변화와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의 삶을 공부하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광화학 스모그,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호수 부영양화, 바다 적조현상, 토양오염, 수자원고갈, 생물멸종 등으로부터 한반도와 지구의 생태계를 구하기 위해서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학문이다.

2. 졸업 후 진로

기업체의 환경관리사, 엔지니어링 회사의 환경기사, 환경벤처기업, 환경기술사, 환경기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환경고시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산업체에서 녹색경영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영향평가 회사나 환경운동단체에서 일하며 환경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위성사진분석, 환경현상 시뮬레이션, 환경오염 분석 등의 환경정보화와 환경관측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2.80)가 석사(2.72)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석사(2.96)가 박사(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7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3.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81.8%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9.1%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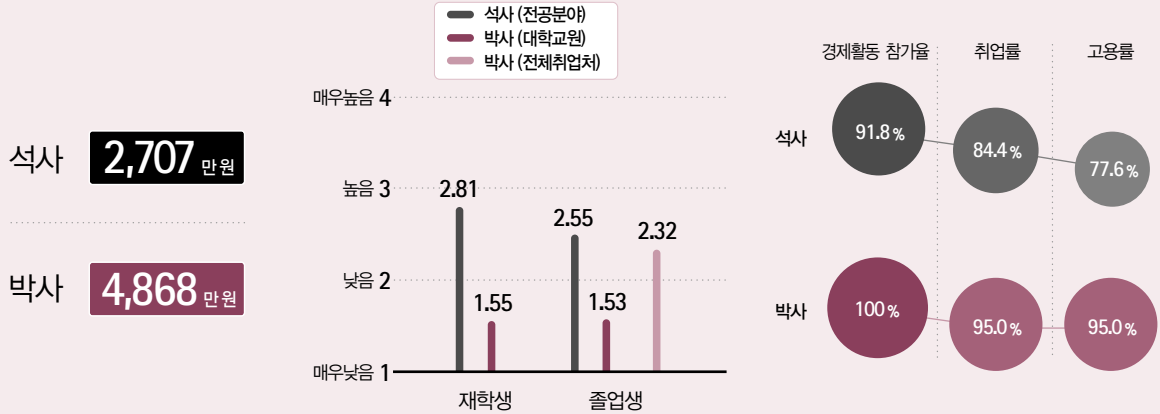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707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86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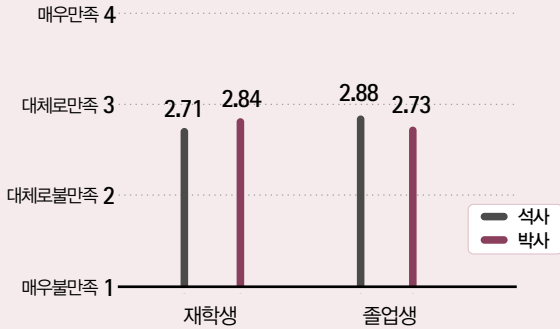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81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5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55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3으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32로 높은 취업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1.8%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84.4%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77.6%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100.0%였고, 취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95.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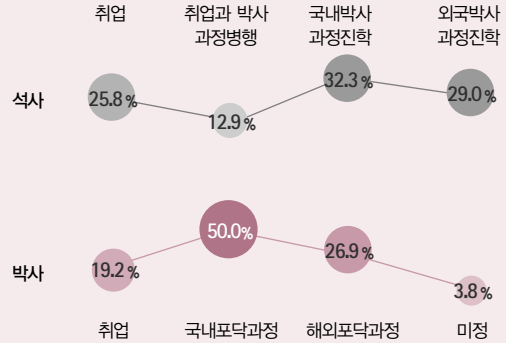
수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수학은 여러 자연현상을 그 본질적 성질들에 의한 논리적 구조를 통해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많은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순수수학 분야는 물론이고 현대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산 분야 및 통계 분야도 함께 연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수학에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학문적 연구에 뒷받침이 되는 순수수학 이론과 통계, 수치해석 및 그래프이론 등 다양한 응용분야의 이론과 그에 대한 활용을 터득하도록 지도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동시에 고도화된 정보사회의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후 대학교수가 되거나 모든 기초 자연과학 분야, 공학, 경영 및 법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고, 중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또한 통계조사기관의 전문요원이나 일반 기업체의 전산실·통계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2.84)가 석사(2.71)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석사(2.88)가 박사(2.7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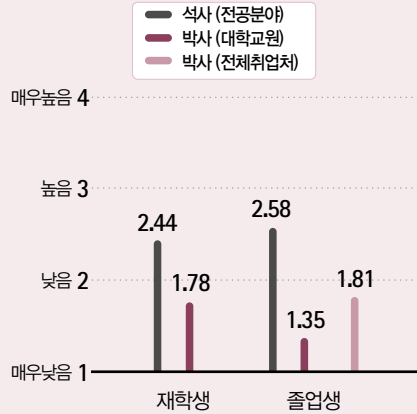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국내 박사과정이 3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29.0%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19.2%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26.9%를 나타냈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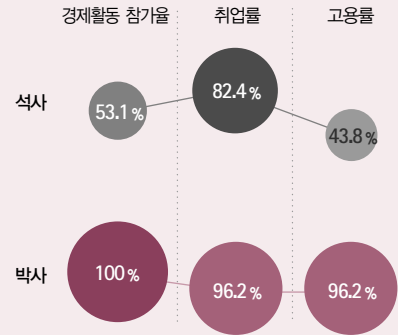
석사 **2,787** 만원

박사 **2,925** 만원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787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2,925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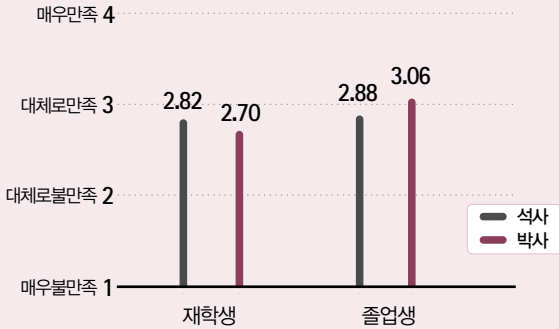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44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8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58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35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1.81로 나타났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53.1%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82.4%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43.8%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100.0%고, 취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96.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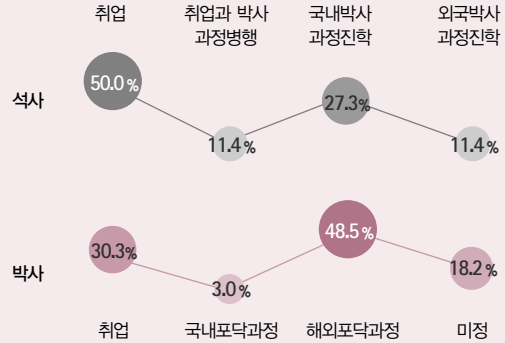
물리 · 과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물리학은 자연계의 사물과 현상이 갖는 규칙성을 관측과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몇 가지 간결한 법칙들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물리학은 인류의 사상과 철학에 큰 영향을 주어 왔고, 현대 기술문명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물리학 전반에 관해 보다 심화된 이론 및 실험적 자질을 습득케 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물리학 각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토대로 물리학, 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육, 연구 및 개발에 기여할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후 연구소 연구원(국내외 국·공립 연구원), 대기업 연구원(국내외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증권·투자 전문가(전산물리학, 이론물리학 전공자), 특허 기술 전문가(특허청, 대기업 연구소)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82)가 박사(2.70)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박사(3.06)가 석사(2.88)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11.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30.3%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48.5%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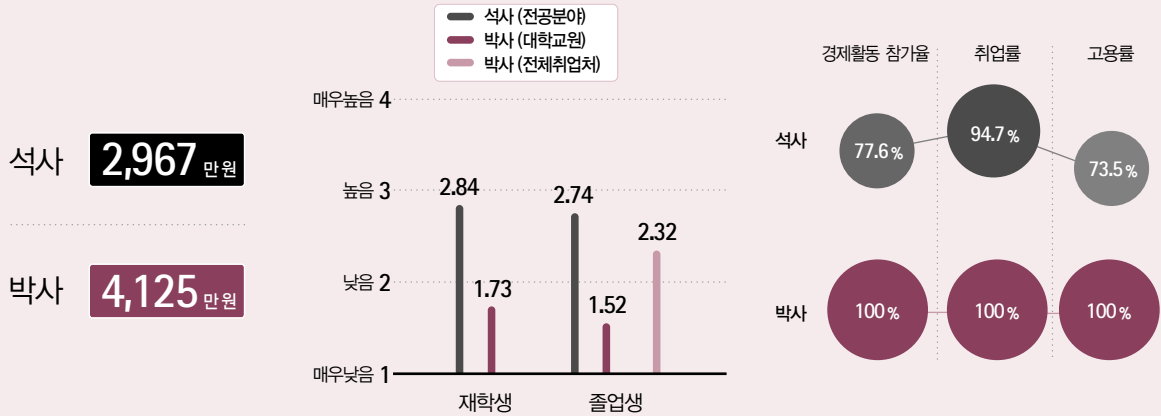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967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12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취업전망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84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73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74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2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32로 높은 취업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7.6%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94.7%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73.5%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자연계열 Tip 정보

1) 진학동기

자연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박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61	①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9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63	②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4
교수가 되기 위해서	2.57	③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4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07	④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26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82	⑤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81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76	⑥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76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7	⑦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8

순위

자연계열

석사 학위 취득자의 석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52	①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48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64	②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52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2.15	③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11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05	④ 교수가 되기 위하여	2.09
교수가 되기 위하여	1.90	⑤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1.95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1	⑥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6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55	⑦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66

순위

*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그러함 4: 매우 그러함

2) 동일 전공 진학 비율

자연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전공이 석사 전공과 동일한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89.2	①	동일 전공자	87.6
타 전공자	10.8	②	타전공자	12.4
		순위		

자연계열

석사 전공과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학문적 매력	55.6	①	학문적 매력	40.9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27.8	②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22.7
적성에 맞아서	11.1	③	적성에 맞아서	18.2
기타	5.6	④	기타	18.2
		순위		

자연계열

학부와 석사의 동일 전공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92.0	①	동일 전공자	81.3
타 전공자	8.0	②	타 전공자	18.7
		순위		

자연계열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의 석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학문적 매력	54.5	①	학문적 매력	45.4
적성에 맞아서	22.7	②	적성에 맞아서	27.7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18.2	③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21.2
학위취득 용이성	4.5	④	기타	4.5
기타	0.0	⑤	학위취득 용이성	1.2
		순위		

자연계열

동일 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82.9	① 동일 대학 진학	77.1
타 대학 진학	17.1	② 타 대학 진학	22.9

순위

자연계열

석사와 다른 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40.7	① 교육여건이 좋아서	22.8
교육여건이 좋아서	11.1	② 기타	18.4
교수진이 좋아서	11.1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5.3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7.4	④ 교수진이 좋아서	14.3
석사취득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7.4	⑤ 거주지와 인접하여	9.5
명성이 높아서	3.7	⑥ 명성이 높아서	5.8
학비가 저렴해서	3.7	⑦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4.8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3.7	⑧ 학비가 저렴해서	3.7
거주지와 인접하여	3.7	⑨ 석사취득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3.2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3.7	⑩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1.1
기타	3.7	⑪ 학부교수 및 주변인 추천으로	1.1

순위

자연계열

학부와 동일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72.2	① 동일 대학 진학 66.8
타 대학 진학 27.8	② 타 대학 진학 33.2
	순위

자연계열

학부 대학과 다른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이유 (단위 : %)

전 체

교육여건이 좋아서 25.3	① 교육여건이 좋아서 22.4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17.3	②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15.1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6.0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4.8
교수진이 좋아서 13.3	④ 교수진이 좋아서 13.0
명성이 높아서 9.3	⑤ 명성이 높아서 12.6
학비가 저렴해서 8.0	⑥ 기타 7.0
기타 6.5	⑦ 학비가 저렴해서 6.4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4.0	⑧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3.2
	순위

3) 학비 조달 방법

자연계열	박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28.0	①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36.1
장학금	22.9	② 개인 저축 18.2
개인 저축	15.3	③ 장학금 14.3
부모 지원	12.1	④ 부모 지원 10.9
RA	5.7	⑤ RA 4.8
배우자 지원	5.1	⑥ 기타 4.3
TA	4.5	⑦ 배우자 지원 4.2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4.5	⑧ TA 3.7
기타	1.9	⑨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3.5
		순위

자연계열	석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장학금	31.8	①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34.8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30.3	② 장학금 22.4
RA·TA를 통해	17.0	③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12.2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10.1	④ RA·TA를 통해 12.1
은행대출	3.6	⑤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8.7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3.2	⑥ 기타 5.0
기타	3.9	⑦ 은행대출 4.8
		순위

4) 근무형태 및 취업기관

자연계열

박사학위자의 근무형태 (단위 : %)

전 체

풀타임 정규직 (정년 보장)	49.0	① 풀타임 정규직 (정년 보장)	55.4
포스트닥	23.2	②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21.0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16.1	③ 파트타임직	14.3
파트타임직	11.0	④ 포스트닥	7.4
기타	0.6	⑤ 기타	2.1

순위

자연계열

박사학위자의 취업기관 (단위 : %)

전 체

4년제 대학	29.7	① 4년제 대학	30.7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4.8	②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1.4
대학 연구소	9.7	③ 국내 대기업	7.6
국내 중소기업	9.7	④ 초·중·고등학교	6.7
초·중·고등학교	8.4	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6.5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6.5	⑥ 기타	6.4
국내 대기업	5.8	⑦ 국내 중소기업	6.0
기타	4.5	⑧ 민간기업체 연구소	4.6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2.6	⑨ 2년제 대학	4.4
민간기업체 연구소	1.9	⑩ 대학 연구소	4.0
2년제 대학	1.3	⑪ 의료 기관	3.9
개인 사업(창업)	1.3	⑫ 개인 사업(창업)	3.6
의료 기관	1.3	⑬ 비영리 민간기구	1.5
외국계 기업	0.6	⑭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4
비영리 민간기구	0.6	⑮ 공기업·공공투자기관	0.7
공기업·공공투자기관	0.6	⑯ 외국계 기업	0.5
군대	0.6	⑰ 군대	0.1

순위

자연계열

석사학위자의 진로상황 (단위 : %)

전 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2.7	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6.2
박사과정 중	18.4	② 박사과정 중	15.3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5.5	③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1.7
구직중	6.1	④ 구직중	4.7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2.2	⑤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3.3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2.2	⑥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2.8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1.4	⑦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2.8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1.1	⑧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2.0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0.4	⑨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1.2

순위

자연계열

석사학위자의 취업 기관 (단위 : %)

전 체

국내 중소기업	23.8	① 국내 대기업	22.3
국내 대기업	20.3	② 국내 중소기업	21.5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2.4	③ 기타	7.8
민간기업체 연구소	7.9	④ 의료기관	7.3
4년제 대학	7.4	⑤ 4년제 대학	7.2
개인 사업(창업)	5.9	⑥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6.9
의료기관	4.0	⑦ 민간기업체 연구소	5.4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3.5	⑧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8
초·중·고등학교	3.0	⑨ 개인 사업(창업)	4.2
기타	3.0	⑩ 외국계 기업	3.3
대학 연구소	2.5	⑪ 초·중·고등학교	3.2
외국계 기업	2.0	⑫ 비영리 민간기구	1.7
비영리 민간기구	2.0	⑬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5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0	⑭ 대학 연구소	1.3
2년제 대학	0.5	⑮ 2년제 대학	1.3
법인 단체	0.5	⑯ 법인 단체	0.2
국제 기구	0.5	⑰ 국제 기구	0.1

순위

5) 구직시 취업정보 출처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채용회사 홈페이지	기타	계
4년제 대학	16.7	8.3	33.3		41.7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00.0			100.0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00.0			100.0
대학 연구소			100.0			100.0
국내 중소기업			100.0			100.0
기타		66.7		33.3		100.0

석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헤드 헌터	채용회사의 JOB FAIR	채용회사 홈페이지	대학교 취업정보실	기타	계
4년제 대학	45.5	18.2	18.2					18.2	100.0
2년제 대학						100.0			100.0
초·중·고등학교		33.3						66.7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5.8	21.1	47.4			15.8			100.0
지방자치단체출연(산하) 연구소	100.0								100.0
대학 연구소			100.0						100.0
민간기업체 연구소	7.7	30.8	38.5	7.7	15.4				100.0
국내 대기업	15.8	7.9	34.2		10.5	15.8	10.5	5.3	100.0
국내 중소기업	13.3	31.1	40.0		4.4	2.2	2.2	6.7	100.0
외국계 기업			66.7	33.3					100.0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75.0						25.0	100.0
개인 사업(창업)	20.0	40.0	40.0						100.0
의료기관			100.0						100.0
비영리 민간기구			100.0						100.0
기타	25.0		50.0		25.0				100.0
법인 단체			100.0						100.0
국제 기구			100.0						100.0

6) 향후 취업 전망

자연계열

박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전 체

국내 전체 취업처	2.26	①	국내 전체 취업처	2.44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69	②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71
국내 대학교수 취업	1.46	③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1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5	④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3

순위

자연계열

석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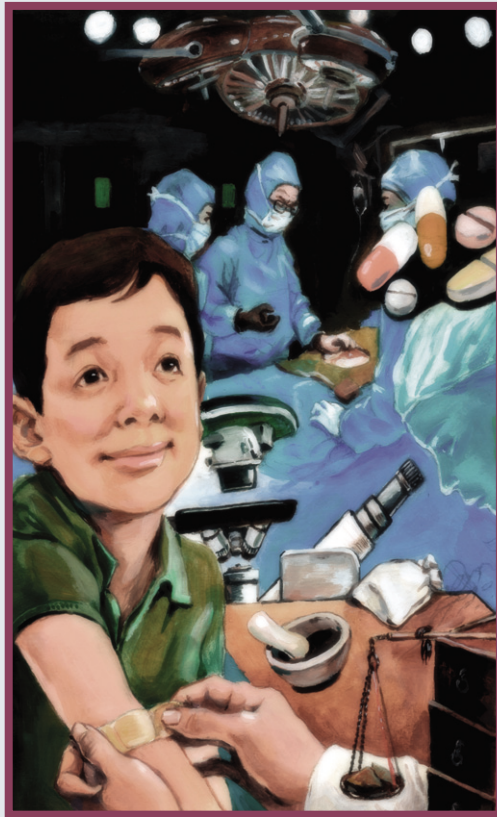
전 체

전공 분야로의 취업	2.64	①	전공 분야로의 취업	2.74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46	②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57

순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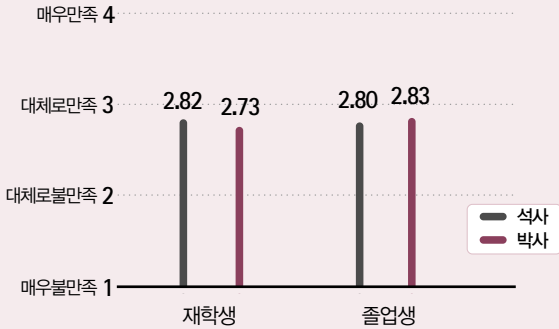
의학계열



의학
약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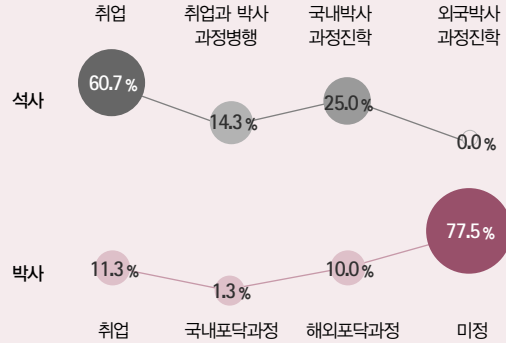
의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인간생명 존중사상에 입각하여 전문 의학적 학술이론과 그 응용기법을 교수 및 연구한다. 첨단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의 원인, 진단, 치료 및 예방법을 개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봉사자를 양성한다. 국제적 학술교류와 타 학문 분야와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국제적 전문 의학자를 육성한다.

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졸업 후 주로 국내외 의과대학의 교수, 종합병원과 병원의 봉직의, 개원가, 공직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석사(2.82)가 박사(2.73)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박사(2.83)가 석사(2.80)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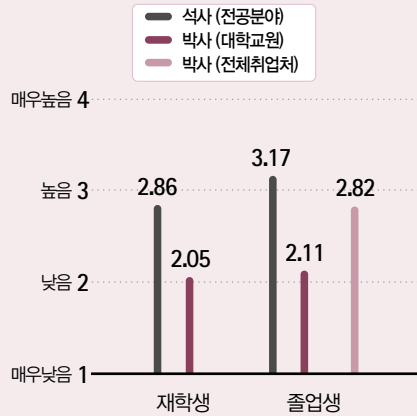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없었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11.3%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10.0%를 나타냈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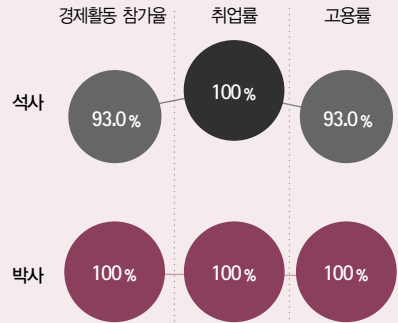
석사 **4,457** 만원

박사 **7,054** 만원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4,457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7,054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취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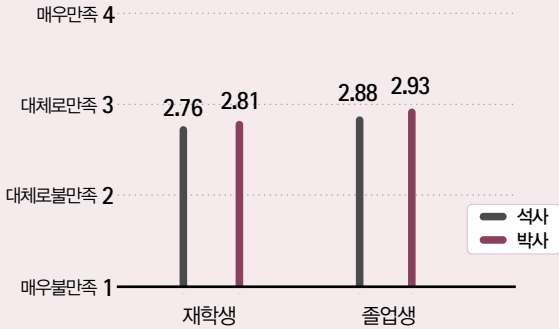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2.86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2.05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3.17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2.11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82로 높은 취업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3.0%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100.0%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93.0%로 나타났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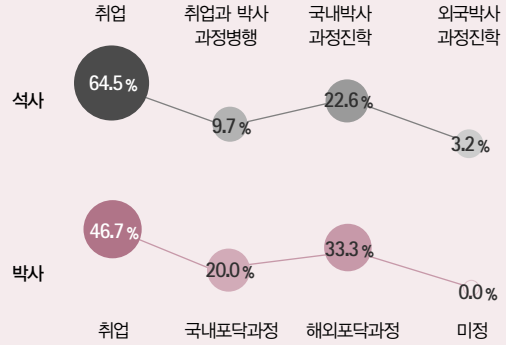
약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약학과의 교육목적은 인류를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 치료하는 데 있으며, 헌신적인 봉사관과 뚜렷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지식을 갖춘 약사를 양성하고 이들 지식을 임상에 활용하여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2. 졸업 후 진로

종합병원, 약국, 제약회사,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등의 공공기관 변리사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국제경쟁 시대에 신약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 및 각계의 연구기관 등에서도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2.81)가 석사(2.76)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도 박사(2.93)가 석사(2.88)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3.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6.7%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33.3%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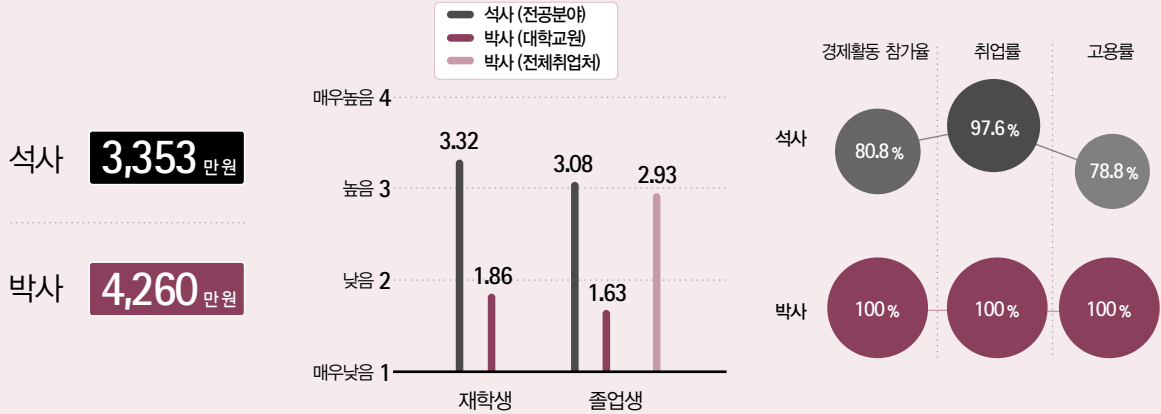
연봉

[졸업생]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3,353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4,260만원이었다.

● 취업전망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32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86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3.08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63으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은 2.93으로 높은 취업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0.8%로 나타났지만 취업률은 97.6%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78.8%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의약계열 Tip 정보

1) 진학동기

의약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박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41	①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9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1	②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4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31	③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43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10	④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26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94	⑤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81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94	⑥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76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7	⑦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8

순위

의약계열

석사 학위 취득자의 석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17	①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48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83	②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52
교수가 되기 위하여	2.30	③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11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30	④ 교수가 되기 위하여	2.09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99	⑤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1.95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1.94	⑥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6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84	⑦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66

순위

*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그러함 4: 매우 그러함

2) 동일 전공 진학 비율

의약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전공이 석사 전공과 동일한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82.2	① 동일 전공자 87.6
타 전공자 17.8	② 타전공자 12.4
	순위

의약계열

학부와 석사의 동일 전공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72.1	① 동일 전공자 81.3
타 전공자 27.9	② 타 전공자 18.7
	순위

의약계열

석사 전공과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학문적 매력 51.4	① 학문적 매력 45.4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31.4	② 적성에 맞아서 27.7
적성에 맞아서 8.6	③ 취업 · 경력개발에 유리 21.2
학부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5.7	④ 학부전공과 연계하고 싶어서 1.5
학위취득 용이성 2.9	⑤ 현재 하고 있는 일 · 직장에 필요해서 1.5
현재 하고 있는 일 · 직장에 필요해서 0.0	⑥ 기타 1.5
기타 0.0	⑦ 학위취득 용이성 1.2
	순위

의약계열

동일 대학의 석 · 박사 취득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78.4	① 동일 대학 진학 77.1
타 대학 진학 21.6	② 타 대학 진학 22.9
	순위

의약계열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의 석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교육여건이 좋아서	43.8	①	기타	27.5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8.8	②	교육여건이 좋아서	22.8
교수진이 좋아서	12.5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5.3
학비가 저렴해서	6.3	④	교수진이 좋아서	14.3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6.3	⑤	거주지와 인접하여	9.5
거주지와 인접하여	6.3	⑥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4.8
직장과 인접하여	6.3	⑦	학비가 저렴해서	3.7
기타	0.0	⑧	직장과 인접하여	2.1

순위

의약계열

학부와 동일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64.6	①	동일 대학 진학	66.8
타 대학 진학	35.4	②	타 대학 진학	33.2

순위

의약계열

학부 대학과 다른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이유 (단위 : %)

전 체

교육여건이 좋아서	22.5	①	교육여건이 좋아서	22.4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17.5	②	기타	22.4
교수진이 좋아서	15.0	③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15.1
입학하기가 쉬워서	12.5	④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4.8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7.5	⑤	교수진이 좋아서	13.0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5.0	⑥	학비가 저렴해서	6.4
학비가 저렴해서	5.0	⑦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3.2
기타	15.0	⑧	입학하기가 쉬워서	2.7

순위

3) 학비 조달 방법

의약계열	박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43.8	①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박사과정 중의 소득 36.1
개인 저축	17.8	② 개인 저축 18.2
장학금	9.6	③ 장학금 14.3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8.2	④ 부모 지원 10.9
부모 지원	6.8	⑤ RA 4.8
대출	4.1	⑥ 배우자 지원 4.2
TA	2.7	⑦ TA 3.7
프로젝트 참여	2.7	⑧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3.5
RA	1.4	⑨ 대출 3.0
배우자 지원	1.4	⑩ 기타 0.7
기타	1.4	⑪ 프로젝트 참여 0.6
		순위

의약계열	석사과정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	전 체
장학금	22.0	①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34.8
가족(부모·형제·배우자 등)의 지원	21.1	② 장학금 22.4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18.7	③ 아르바이트·취업을 통해서 12.2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15.4	④ RA·TA를 통해 12.1
RA·TA를 통해	8.1	⑤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8.7
은행대출	5.7	⑥ 은행대출 4.8
현재 재직 직장 지원	5.7	⑦ 현재 재직 직장 지원 3.4
기타	2.4	⑧ 기타 1.3
프로젝트 참여	0.8	⑨ 프로젝트 참여 0.3
		순위

4) 근무형태 및 취업기관

의약계열

박사학위자의 근무형태 (단위 : %)

전 체

풀타임 정규직 (정년 보장) 60.8	① 풀타임 정규직 (정년 보장) 55.4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24.3	②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21.0
포스트닥 6.8	③ 파트타임직 14.3
개인사업 5.4	④ 포스트닥 7.4
파트타임직 2.7	⑤ 개인사업 1.8
기타 0.0	⑥ 기타 0.3
	순위

의약계열

박사학위자의 취업기관 (단위 : %)

전 체

의료 기관 35.1	① 4년제 대학 30.7
4년제 대학 18.9	② 기타 17.3
민간기업체 연구소 8.1	③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1.4
국내 대기업 8.1	④ 국내 대기업 7.6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6.8	⑤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6.5
개인 사업(창업) 6.8	⑥ 국내 중소기업 6.0
국내 중소기업 4.1	⑦ 민간기업체 연구소 4.6
기타 4.1	⑧ 2년제 대학 4.4
2년제 대학 2.7	⑨ 대학 연구소 4.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2.7	⑩ 의료 기관 3.9
대학 연구소 2.7	⑪ 개인 사업(창업) 3.6
	순위

의약계열

석사학위자의 진로상황 (단위 : %)

전 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8.5	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6.2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7.9	② 박사과정 중	15.3
박사과정 중	10.6	③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1.7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8.9	④ 구직중	4.7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0.8	⑤ 풀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3.3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0.8	⑥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2.8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0.8	⑦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2.8
구직중	0.8	⑧ 파트타임 취업과 박사과정진학을 병행하고 있음	2.0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0.8	⑨ 박사과정 진학준비 중	1.2

순위

의약계열

석사학위자의 취업 기관 (단위 : %)

전 체

의료기관	48.6	① 국내 대기업	22.3
국내 중소기업	10.3	② 국내 중소기업	21.5
국내 대기업	9.3	③ 기타	14.3
4년제 대학	7.5	④ 의료기관	7.3
기타	6.5	⑤ 4년제 대학	7.2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5.6	⑥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6.9
민간기업체 연구소	4.7	⑦ 민간기업체 연구소	5.4
개인 사업(창업)	1.9	⑧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8
군대	1.9	⑨ 개인 사업(창업)	4.2
2년제 대학	0.9	⑩ 외국계 기업	3.3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0.9	⑪ 2년제 대학	1.3
대학 연구소	0.9	⑫ 대학 연구소	1.3
외국계 기업	0.9	⑬ 군대	0.2

순위

5) 구직시 취업정보 출처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 분	의약계열	전체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41.1	27.8
선배·동료의 도움	31.5	28.0
기타	17.8	22.6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5.5	11.8
채용회사 홈페이지	2.7	3.5
신문광고	1.4	6.3
계	100.0	100.0

석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지도교수 (학교)의 추천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채용회사의 JOB FAIR	채용회사 홈페이지	대학교 취업정보실	기타	계
4년제 대학	57.1	42.9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00.0					100.0
대학 연구소	100.0							100.0
민간기업체 연구소	20.0	20.0	40.0				20.0	100.0
국내 대기업	30.0	20.0	50.0					100.0
국내 중소기업		27.3	45.5		27.3			100.0
외국계 기업						100.0		100.0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0.0	20.0	20.0			20.0	100.0
개인 사업(창업)							100.0	100.0
의료기관	8.0	40.0	20.0				32.0	100.0
기타	25.0				25.0		50.0	100.0

6) 향후 취업 전망

의약계열

박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전 체

국내 전체 취업처	2.86	①	국내 전체 취업처	2.44
국내 대학교수 취업	1.93	②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71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83	③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1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44	④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3

순위

의약계열

석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

전 체

전공 분야로의 취업	3.13	①	전공 분야로의 취업	2.74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79	②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57

순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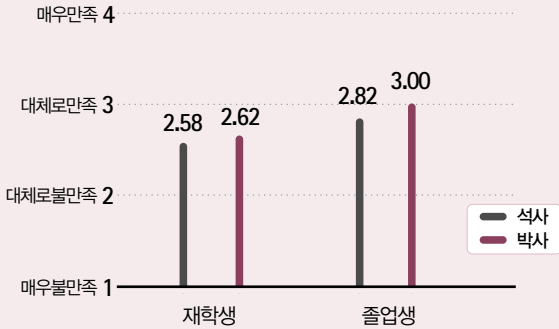
예체능계열



디자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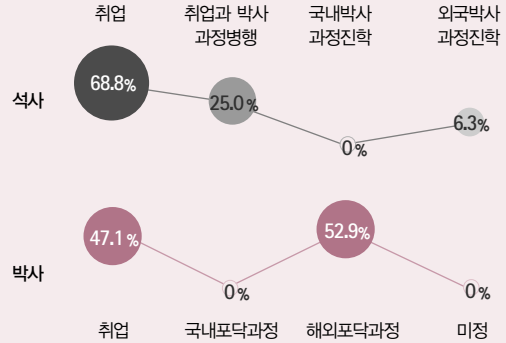
디자인학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재학생]



1. 학과 개요

산업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형 활동들은 예술과 기술의 실질적인 결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산업이 고도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사회적 여건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성과 함께 새로운 조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Total design과 Fusion 개념의 교육을 목표로 하여 창의적인 능력을 겸비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굿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기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유동적인 커리큘럼과 교육철학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함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2. 졸업 후 진로

대기업 디자인 관련 부서 및 광고회사, 디자인 전문회사 등에서 디자이너 및 디자인 관리자로 활약하며,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 전공 만족도

재학생은 박사(2.62)가 석사(2.58)보다 높게 나타났고, 졸업생은 박사(3.00)가 석사(2.82)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6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생은 취업이 47.1%를 차지했고, 외국 박사로의 유학은 52.9%를 나타냈다.

연봉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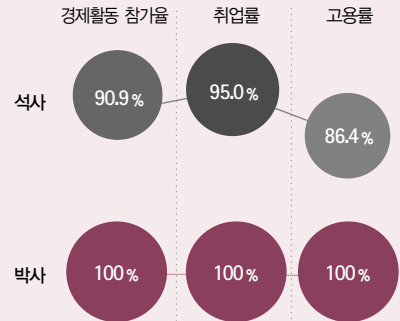
취업전망

취업현황

[졸업생]

석사 **2,978** 만원

박사 **2,366** 만원



● 연봉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이 2,978만원이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평균연봉은 2,366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취업전망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3.11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7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2.95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대학교원이 될 가능성을 1.50으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업 가능성도 1.75로 낮은 취업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업현황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90.9%로 나타났고, 취업률은 95.0%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86.4%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고용률이 모두 100.0%였다.

예체능계열 Tip 정보

1) 진학동기

예체능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의 박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0	① 전공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59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5	②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4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50	③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43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25	④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2.26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2.00	⑤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1.81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75	⑥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76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75	⑦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38
		순위

예체능계열	석사 학위 취득자의 석사과정 진학동기	전 체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45	①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3.48
교수가 되기 위하여	2.70	②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52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29	③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2.11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2.20	④ 교수가 되기 위하여 2.09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2.00	⑤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1.95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5	⑥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1.66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1.65	⑦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1.66
		순위

*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그러함 4: 매우 그러함

2) 동일 전공 진학 비율

예체능계열

석·박사 동일 전공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100.0	①	동일 전공자	87.6
타 전공자	0.0	②	타전공자	12.4
		순위		

예체능계열

석사 전공과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학문적 매력	33.3	①	학문적 매력	40.9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33.3	②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22.7
적성에 맞아서	13.3	③	적성에 맞아서	18.2
기타	13.3	④	기타	17.3
학위취득 용이성	6.7	⑤	학위취득 용이성	0.9
		순위		

예체능계열

학부와 석사의 동일 전공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전공자	77.3	①	동일 전공자	81.3
타 전공자	22.7	②	타 전공자	18.7
		순위		

예체능계열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의 석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적성에 맞아서	80.0	①	기타	51.1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20.0	②	적성에 맞아서	27.7
기타	0.0	③	취업·경력개발에 유리	21.2
		순위		

예체능계열

동일 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75.0	①	동일 대학 진학	77.1
타 대학 진학	25.0	②	타 대학 진학	22.9

순위

예체능계열

석사와 다른 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단위 : %)

전 체

석사취득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100.0	①	기 타	96.8
기 타	0.0	②	석사취득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3.2

순위

예체능계열

학부와 동일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비율 (단위 : %)

전 체

동일 대학 진학	65.0	①	동일 대학 진학	66.8
타 대학 진학	35.0	②	타 대학 진학	33.2

순위

예체능계열

학부 대학과 다른 대학의 석사과정 진학 이유 (단위 : %)

전 체

명성이 높아서	42.9	①	기타	37.2
교육여건이 좋아서	14.3	②	교육여건이 좋아서	22.4
교수진이 좋아서	14.3	③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4.8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14.3	④	교수진이 좋아서	13.0
기타	14.3	⑤	명성이 높아서	12.6

순위

3) 학비 조달 방법



4) 근무형태 및 취업기관

예체능계열

박사학위자의 근무형태 (단위 : %)

전 체

파트타임직	75.0	①	기타	64.7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25.0	②	풀타임 비정규직 (정년비 보장)	21.0
기타	0.0	③	파트타임직	14.3

순위

예체능계열

박사학위자의 취업기관 (단위 : %)

전 체

4년제 대학	75.0	①	기타	64.9
2년제 대학	25.0	②	4년제 대학	30.7
기타	0.0	③	2년제 대학	4.4

순위

예체능계열

석사학위자의 진로상황 (단위 : %)

전 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68.2	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56.2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18.2	②	기 타	33.5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9.1	③	구직중	4.7
구직중	4.5	④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2.8
기 타	0.0	⑤	건강·집안 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2.8

순위

예체능계열

석사학위자의 취업 기관 (단위 : %)

전 체

국내 중소기업	50.0	①	기 타	31.8
개인 사업(창업)	16.7	②	국내 대기업	22.3
4년제 대학	11.1	③	국내 중소기업	21.5
2년제 대학	5.6	④	4년제 대학	7.2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5.6	⑤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6.9
국내 대기업	5.6	⑥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4.8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5.6	⑦	개인 사업(창업)	4.2
기 타	0.0	⑧	2년제 대학	1.3

순위

5) 구직시 취업정보 출처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채용회사 홈페이지	기타	계
4년제 대학	33.3	33.3	33.3	100.0

석사 학위 취득자의 직장별 취업정보원 (단위 : %)

구분	선배·동료의 도움	인터넷 채용 정보사이트	채용회사 홈페이지	기타	계
4년제 대학				100.0	100.0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100.0			100.0
국내 대기업			100.0		100.0
국내 중소기업	25.0	62.5	12.5		100.0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00.0			100.0
개인 사업(창업)	100.0				100.0

6) 향후 취업 전망

예체능계열

박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전 체

국내 전체 취업처	1.75	①	국내 전체 취업처	2.44
국내 대학교수 취업	1.50	②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71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25	③	국내 대학교수 취업	1.61
외국(글로벌 마켓) 전체 취업처	1.25	④	외국(글로벌 마켓)의 대학교수 취업	1.33

순위

예체능계열

석사학위자의 3년 이내 전공 분야의 취업 가능성

전 체

전공 분야로의 취업	2.95	①	전공 분야로의 취업	2.74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74	②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57

순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 높음

부록

학과별 관련 학과(전공) 및 설치대학

가. 인문계열

(가) 국어·국문학

- 국어국문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불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문예창작학과 경기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송실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남대학교
- 한국어 문학과 한성대학교

(나) 일본어·문학

- 일어일본학과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신라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한남대학교
- 일본학과 강원대학교, 계명대학교, 배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신대학교
- 기타 일어일본문화학과(가톨릭대학교), 일본문화언어학과(건국대학교), 일어일본학과(인하대학교), 일본지역연구과(동서대학교)

(다) 중국어·문학

- 중어중문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송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 중국학과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기타 중국어학과(대불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중국어문학과(상명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대전대학교), 중문학과(동의대학교)

(라) 영미어문학

- 영어영문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강원대학교, 경희대

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여수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영어학과 대불대학교, 서경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 기타 영어과(선문대학교), 영미어문화학과(경희대학교)

(마) 외국어 · 문학(독어독문, 불어불문)

- 독어독문학과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원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송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 독일어문학과(상명대학교, 한남대학교), 독일학과(제주대학교)
- 불어불문학과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송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 프랑스어문학과(성균관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프랑스학과(공주대학교)
- 기타 동유럽어문학과(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어서문학과(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조선대학교), 스페인어문학과(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대구가톨릭대학교), 이태리어과(대구가톨릭대학교)

2. 사회계열

(가) 심리학

- 심리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 기타 상담심리학과(건양대학교), 산업심리학과(광운대학교, 호서대학교), 범죄심리학과(경기대학교)

(나) 역사·철학

- 고고학과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 국사학과 가톨릭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영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신대학교
- 사 학 과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홍익대학교
- 역사학과 계명대학교, 선문대학교, 세종대학교
- 한국사학과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 기타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서울대학교), 역사문화학과(울산대학교), 한국지방사학과(목포대학교)

- 철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송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 국민윤리학과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 동양철학과 경산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안동대학교
- 윤리문화학과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 윤리학과 공주대학교, 전남대학교
- 기타 한국사회윤리학과(전북대학교), 한국철학과(성균관대학교)

(다) 경영학

- 경영정보학과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단국대학교, 대불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부경대학교, 서남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홍익대학교
- 경영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위덕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관광경영학과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강원대학교, 계명대학교, 관동대학교, 대구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인양대학교, 제주대학교
- 호텔(관광)경영학과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동의대학교, 세종대학교, 호남대학교
- 국제경영학과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충북대학교
- 부동산학과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전주대학교
- 기타 디지털경영학과(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수산경영학과(경상대학교), 이벤트국제회의학과(경기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정보통신경영학과(건국대학교), 축산경영학과(건국대학교, 영남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과(부경대학교), 해운경영학과(한국해양대학교), E-business(경영)학과(한양대학교)

(라) 경제학

- 경제학과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송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농(업)경제학과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 자원경제학과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 기타 경제금융학과(한양대학교), 경영경제학과(한동대학교), 경제통상학과(세종대학교), 농경경제사회학(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강원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동국대학교), 응용경제학과(동아대학교, 한양대학교), 자원경제학과(부경대학교), 축산경제학과(건국대학교)

(마) 법학

- 법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불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타 공법학과, 사법학과(영남대학교), 산업재산권학과(경기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인하대학교), 해사법학과(한국해양대학교)

(바) 사회학

- 사회생활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 사회학과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 기타 도시사회학과(서울시립대학교), 응용사회학과(아주대학교)

(사) 행정학

- 경찰행정학과 경기대학교, 계명대학교, 관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동국대학교, 서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 보건행정학과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 행정정보학과 경운대학교, 목원대학교
- 행정학과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여수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 기타 교정학교(경기대학교), 도시행정학과(서울시립대학교), 소방행정전공(대불대학교), 사회정책및노동정책(한신대학교), 소방학과(호서대학교), 지치행정학과(충남대학교), 정책학과(고려대학교), 통상행정학과(한국해양대학교), 보건행정학과(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3. 교육계열

(가) 교육학

- 교과교육학과 경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 교육공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한양대학교
- 교육심리학과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 교육학과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 사회교육(학)과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대구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 유아교육학과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 기타 교육학과(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학과(대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4. 공학계열

(가) 건축·설비공학

- 건축공학과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운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수원대학교, 숭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건축학과 강원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의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양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여수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타 건설공학과(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공주대학교, 울산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 건축환경학과(경산대학교)

(나) 토목공학

- 토목공학과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관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불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지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선문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토목환경공학과 강원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전대학교, 명지대학교, 배재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안동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 기타 농업토목공학과(경북대학교), 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인천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제주대학교)

(다) 기계공학

- 기계공학과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불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계설계공학과 금오공과대학교, 대전대학교,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 기계설계학과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국민대학교, 동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양대학교
- 기계시스템공학과(전공) 경상대학교, 한성대학교
- 정밀기계공학과 강릉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북대학교
- 메카트로닉스학과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 기타 기계자동화공학과(울산대학교), 기계및제어공학과(선문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서울시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서울대학교), 생산기계공학과(금오공과대학교), 테크노기계공학과(금오공과대학교)

(라) 전기공학

- 전기공학과(부)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광운대학교, 단국대학교, 대불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전기전자공학과 경성대학교, 경원대학교, 동신대학교, 서남대학교, 세명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호남대학교

(마) 전자공학

- 전자공학과 강남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경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선문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전기전자공학 경성대학교, 경원대학교, 동신대학교, 서남대학교, 세명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호남대학교
- 기타 전기전산공학과(홍익대학교), 전기전자시스템공학과(울산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서울대학교)

(바) 전산학 · 컴퓨터공학

- 전자계산학과 경기대학교, 경원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경대학교, 선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 컴퓨터공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불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서경대학교,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컴퓨터과학(학)과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광운대학교, 군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남대학교
- 컴퓨터학과 고려대학교, 동신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송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 전자전기컴퓨터과(부)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전자컴퓨터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 기타 전기전자시스템공학과(울산대학교), 전산과학과(국민대학교), 전자전산공학과(홍익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위덕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동의대학교), 컴퓨터응용과(세명대학교), 컴퓨터응용과학과(인제대학교), 컴퓨터전자공학과(경주대학교, 경운대학교), 컴퓨터통계학과(서울시립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호남대학교)

(사) 전산학 · 컴퓨터공학

- 전자정보공학과 군산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홍익대학교
- 전자통신공학과 강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동대학교
- 정보통신(공)학과 경상대학교, 극동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 컴퓨터정보(공)학과 상지대학교, 서남대학교, 선문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신대학교
- 기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울산대학교), 전산및정보통신학과(덕성여자대학교), 전산정보과(세명대학교), 전파통신공학과(금오공과대학교), 정보미디어공학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보과학과(중부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한성대학교), 정보컴퓨터과학과(단국대학교), 컴퓨터및정보통신과(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대구카톨릭대학교)

(아) 화학공학

- 고분자공학과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공업화학과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충북대학교
- 생명화학공학과 동국대학교, 선문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남대학교
- 응용화학(공학)과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 화공생명공학과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 화학공학과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불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타 물질·생물화학공학과(전남대학교), 바이오응용화학(충남대학교), 섬유고분자학과(한양대학교), 정밀화학공학과(한양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서울대학교), 환경공업화학(상명대학교), 환경응용화학(강릉대학교)

5. 자연계열

(가) 생물과학(생물학, 생명공학)

- 생명공학과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고려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생명과학과(부)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아주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
- 생물학과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호남대학교
- 생물과학과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아주대학교
- 기타 농생물학과(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미생물공학과(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분자생물학과(세종대학교), 생물화학공학과(울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생물·미생물학과(창원대학교), 생물산업공학과(강원대학교), 응용생명과학(건국대학교), 응용생물과학(선문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서울대학교), 환경생명정보과학과(영지대학교)

(나) 화학

- 농화학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순천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 생화학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배재대학교, 호서대학교, 한양대학교
- 화학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양대학교
- 기 타 생명화학(대진대학교)

(다) 환경학

- 지구환경과학과 세종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 조경학과 공주대학교, 목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북대학교, 호남대학교
- 환경공학과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운대학교, 고려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 환경보건학과 순천향대학교, 용인대학교
- 환경조경학과 경산대학교, 동신대학교, 청주대학교
- 환경화학공학과 서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남대학교
- 환경토목공학과 경성대학교, 강원대학교
- 환경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기타 건축·환경학과(대구한의대학교), 도시공학과(서울시립대학교), 도시환경공학과(동의대학교), 주거환경학과(대구대학교), 지구과학과(조선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대전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안동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화학환경공학과(선문대학교), 환경과학과(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학과(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한림대학교), 환경화학과(숭실대학교)

(라) 수학

- 수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응용수학과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
- 기타 수학및통계학과(덕성여자대학교), 수학통계학과(창원대학교), 수학정보학과(경원대학교)

(마) 물리·과학

- 나노공(과)학과 : 선문대학교, 인제대학교
- 물리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 응용물리학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 의학과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 기타 지리물리학과(강원대학교), 전자물리학과(광운대학교)

6. 의약계열

(가) 의학

- 의학과 가천의과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의),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아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외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나) 약학

- 약학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과학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7. 예체능계열

(가) 디자인학과

- 디자인학과(부) 경희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신라대학교, 배재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산업디자인학과 강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대불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 시각디자인학과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 의상디자인학과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 패션디자인학과 경일대학교, 대구대학교, 동양대학교, 서남대학교
- 기타 디자인공예학과(홍익대학교), 디자인공학과(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문화미디어디자인학과(한동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과(한성대학교), 미술디자인학과(대구대학교), 섬유디자인학과(전주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과(한양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연세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영남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전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숭실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한양대학교), 신발디자인학과(동서대학교), 인테리어학과(중부대학교), 제품디자인학과(홍익대학교), 제품실내디자인학과(조선대학교), 조형디자인학과(동아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학과(상명대학교),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동양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충북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숙명여자대학교)

만든 사람들

연구협력관

-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국장)
- 장금영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장)
- 한경문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교육연구사)

연구진

- 정윤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김나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김희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촉연구원)
- 임영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촉연구원)

디자인 자문

-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